

국가통계 정기품질진단  
연구용역

『핵심주제분야:가계소득』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9. 10. 25.



##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청이 소유하며, 통계청은 정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핵심주제분야:가계소득” 연구용역 과  
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09년 10월 25일

계약기관                      대표 □□

연구진

---

책 임 연 구 원	이충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연 구 보 조 원	이선호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과 박사과정)

## 차 례

제 1 장 품질진단 개요 .....	1
제 1 절 진단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진단 방법 .....	2
1. 개별 통계분석 .....	3
2. 관련 해외통계분석 .....	4
제 2 장 「가계소득」 개요 .....	6
제 1 절 「가계소득」 분야의 정책적 의미 .....	6
1. 「가계소득」의 포괄범위 .....	6
가. 「가계소득」 주제분야 통계의 정의 .....	6
나. 「가계소득」의 주요 통계 .....	10
2. 「가계소득」 주제 연구의 필요성 .....	26
제 2 절 「가계소득」 통계 작성현황과 특징 .....	27
1. 국내 통계 작성 현황 .....	27
가. 「가계동향」 .....	27
나. 「농가경제」 .....	30
다. 「어가경제」 .....	35
라. 「임가경제」 .....	39
2. 관련 해외 통계 작성 현황 .....	41
가. 「가계동향」 .....	41
나.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	51
다. 해외 관련 통계조사의 시사점 .....	59

제 3 장 「가계소득」 분야 품질진단 결과 .....	61
제 1 절 「가계소득」 개별통계의 진단 결과 종합 .....	61
1. 품질관리기반 진단 .....	61
2.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 실태 진단 .....	63
3. 세부작성 절차별 체계 진단 .....	64
4.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 .....	65
5.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진단 .....	67
제 2 절 주요 문제점 및 개선과제 .....	67
1. 작성자와 이용자간의 통계 품질 인식 차이 .....	67
2. 각 통계의 통계주제별 구분 .....	69
3. 통계설명자료 접근성 개선 .....	76
4. 수집자료의 정확성 개선 .....	77
5. 비교성 개선 .....	79
제 4 장 「가계소득」 장·단기 발전전략 및 로드맵 .....	86
제 1 절 「가계소득」 통계의 품질 개선 .....	86
1. 통계 작성 기관간 협력 제고 .....	86
가. 작성기관간 협력 제고의 필요성 .....	86
나. 해결방안 .....	88
2. 유사 관련통계와의 관계 강화 .....	89
가. 유사 통계 현황 및 활용 가능성 .....	89
나. 해결방안 .....	91
제 2 절 정책활용 및 외국사례를 통한 신규통계 개발 방향 .....	93
1. 지역별 통계의 작성 발표 .....	93
가. 지역별 통계발표의 필요성 .....	93
나. 해결방안 .....	95
2. 가계동향, 어가경제 및 농가경제의 소비지출 부문 통합 .....	96
가. 소비지출 통합의 필요성 .....	96
나. 해결방안 .....	98
<참고문헌> .....	101

## 표 차례

<표 1> 「가계소득」 관련 통계의 주요 성격 .....	8
<표 2>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및 농가, 어가 및 임가의 정의 .....	11
<표 3> 「가계소득」 개별 통계의 조사목적 .....	14
<표 4> 「가계소득」 통계의 모집단과 조사 표본 .....	16
<표 5> 「가계소득」 작성방법 및 주기 .....	18
<표 6> 「가계소득」 조사체계 .....	19
<표 7> 「가계소득」 관련 통계의 주요 연혁 .....	21
<표 8> 「가계동향조사」의 수입 및 지출항목 .....	24
<표 9>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에서 경영과 가계의 관계 .....	25
<표 10> 「가계동향」 주요연혁 .....	27
<표 11> 「가계동향」의 조사대상 변천 .....	28
<표 12> 「농가경제」 주요연혁 .....	31
<표 13> 「농가경제」의 경영과 가계의 관계 .....	34
<표 14> 「어가경제」 주요연혁 .....	37
<표 15> 「어가경제」의 경영과 가계의 관계 .....	38
<표 16> 일본 「가계조사」의 조사내용 및 방법 .....	43
<표 17> 일본 「가계조사」의 조사가구 할당표 .....	44
<표 18> 일본 「가계조사」의 수입 및 지출항목 .....	46
<표 19> 「가계동향」 관련 해외통계 현황 .....	50
<표 20>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 관련 주요 해외통계 ..	58
<표 21> 「가계소득」 품질관리기반 설문지 요약 .....	62
<표 22> 외부진단과 내부진단 점수의 차이 .....	65
<표 23> 「가계소득」의 정확성 진단 결과 .....	66
<표 24> 「가계소득」 통계의 주제별 구분 .....	71
<표 25> 농가, 어가 및 임가 소득의 원천별 구분 .....	80

## 그림 차례

<그림 1> 농가, 어가, 임가의 소득 분류 .....	25
<그림 2> 농가소득 산출과정 .....	34
<그림 3> 어가소득 산출과정 .....	38
<그림 4> 일본 농업, 임업, 어업 경영통계 구성 .....	52
<그림 5> 일본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통계의 구성 변화 .....	55
<그림 6> 국가통계현황표상 가계동향(소득) 및 농림업 통계 .....	71
<그림 7> 통계설명자료 주제별 메타자료 구분 .....	72
<그림 8> 국가경제포탈 상 농림어업 통계 자료 화면 .....	73
<그림 9> 국가통계포탈에서 통계설명자료 찾기 .....	74
<그림 10> 통계청 홈페이지의 가계동향 관련 발간물 통계 현황 .....	75
<그림 11> 통계청 홈페이지의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승인통계 소개 .....	77
<그림 12> 통계작성 기관별 협력 제고 .....	87
<그림 13> 유사 관련 통계와의 관계 강화 .....	92
<그림 14> 지역별 통계의 작성 .....	94
<그림 15> 가계동향과 농가경제, 어가경제,임가경제의 소비지출 조정 .....	97

# 제 1 장 품질진단 개요

## 제 1 절 진단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가계소득 주제의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및 「임가경제조사」 통계의 전반적인 통계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이들 주제 분야 통계의 품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포함된 개별통계의 품질 진단 결과를 활용하고, 세계 주요 통계선진국의 관련 통계를 조사하여, 이들 개별 통계진단에서 논의할 수 없었으나 관련 통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점을 주로 지적한다.

통계품질진단에서 개별 통계 진단은 통계청에서 구축한 통계품질진단 시스템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통계의 품질수준을 진단하는 것이다. 즉 ISO인증 진단기법을 통계품질진단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통계의 품질상태를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품질개선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본 연구는 품질진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제점 발생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가계소득 분야의 품질 수준을 개선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품질진단을 통해 파악된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분야의 전반적인 통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주로 해당 작성기관의 현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하면 추가적인 예산 및 인력 투입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품질 제고 방안을 담게 된다.

또한 본 연구는 가계소득 분야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제시한다. 중장기과제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감안할 때 아직 달성할 수 없는 이상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최신 통계이론에 따른 최상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통계작성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통계품질수준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장기적인 통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 진단 사업은 전반적인 품질진단과 함께 품질개선 과제를 찾아냄으로써 국가통



계의 전반적인 품질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제 2 절 진단 방법

통계품질진단의 핵심은 품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통계작성 담당자는 통계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품질진단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품질진단은 통계품질의 문제점과 원인, 개선방향 등을 제시해 주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은 통계작성 환경이 빠르게 변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늘어날수록 더욱 자주 필요하다. 이용자는 기존 통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통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더욱 신속한 통계를 원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더욱 세세한 통계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통계작성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통계품질진단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품질진단 대상 통계의 유형에 따라 조사 분석 방법 및 방법론의 차이와 특징을 고려한다. 셋째, 이들 통계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특징을 함께 고려한 통계품질진단 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사업 대상 통계들의 특징인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통계작성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 원칙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가계소득 주제분야 품질진단 방법은 크게 개별 통계의 품질진단 결과를 활용하는 것과 해외사례분석의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한다. 이때 개별통계품질진단에서는 통계가 작성되고 공표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기반,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세부작성절차별 관리 체계, 수집 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우수사례 발굴, 진단 내용 종합, 등의 개별 통계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해외사례 분석으로는 유사한 주제에 대하여 해외에서는 어떠한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

하는 가를 살펴본다.

## 1. 개별 통계분석

주제분야 품질진단 방법의 첫 번째는 개별 통계의 성격 및 품질 진단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주제에 포함되는 개별 통계의 각종 성격을 확인하고, 또한 개별통계에 대한 품질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이들 통계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개별 통계의 정의 및 포괄 범위 및 작성방법 등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같은 주제분야에 속하는 여러 개별 통계는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통계들이다. 또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통계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가지수에는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출물가, 수입물가 등이 있으며 이들 통계들은 모두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을 지수화한 것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해당품목의 중요성에 따라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상품 및 서비스에 집중된 소비자물가, 생산자들이 중요시하는 생산자물가,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한 물가에 해당하는 수입물가와 수출 물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가계소득 주제분야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통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및 시군구에 해당하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와 어가, 임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을 따로 추계하는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 통계의 정의를 살펴보아, 상호간의 모순되는 점이나 불일치하는 점은 없는 가 혹은 상호간의 공통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실제로 이들 통계들이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가를 또한 조사한다. 즉 주제분야에 속하는 여러 가지 통계가 개별 집단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 것이라면, 실제로 주제분야에 속하지만 추계되지 않은 집단이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개별통계의 이용자 만족도 분석결과를 활용한다. 이때 이용자 만족도 분석은 개별통계에서 실시한 표적집단면접(FGI)의 인터뷰 결과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한다. 즉 이들 통계를 사용하는 전문가 및 일반이용자들이 이들 통계가 갖고 있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같은 주제분야에 속하는 다른 통계와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며, 이들 통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특히 전문가집단은 주제 분야에 속해있는 여러 통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통계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과 이를 위한 발전방향 등을 인터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어, 물가지수의 경우,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를 비교한다.

## 2. 관련 해외통계분석

해외사례분석은 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제 분야의 통계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는 가를 조사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는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관련 주제 분야의 통계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와 활용하는가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각 주제 분야는 여러 가지 통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통계 간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와 보완성 및 대체성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각 국가마다 작성 제도 및 작성기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통계를 한 기관이 모두 작성할 수도 있고, 여러 기관이 서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또한 같은 주제에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의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통계분석은 이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도 압축된다. 즉 국내 통계와 해외 관련 통계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통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 제 2 장 「가계소득」 개요

### 제 1 절 「가계소득」 분야의 정책적 의미

#### 1. 「가계소득」의 포괄범위

##### 가. 「가계소득」 주제분야 통계의 정의

가계소득 주제 분야의 통계는 우리나라 가계 혹은 가구의 소득과 지출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가계소득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은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sup>1)</sup>

국가통계에 등록되어 있는 가계소득 부문의 통계는 2009년 9월 현재, 가계동향조사, 가계신용조사, 가계자산조사, 가전기기보급률 및 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임가경제조사 및 재정패널 등 8종의 통계이다. 이들은 <표 1>과 같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가계의 소득과 생활상에 관련된 통계를 포함한다.<sup>2)</sup>

이중 본 연구는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통계를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4종 통계가 월간 혹은 연간으로 추계 발표되며,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추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또한 이중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가 2009년 정기품질진단에 포함되어 보다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가경제는 2007년 품질진단에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유사한 분석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특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2009

2) 본 연구서에서는 통계명의 후미에 붙는 ‘조사’를 생략한다. 본 연구서 말미까지 계속하여 너무도 많은 통계명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대신 통계명이 반드시 필요한 제목이나 기타의 경우에만 통계명 후미에 ‘조사’를 붙이거나 「」 표시를 하였다.

히 임가경제는 임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어가경제 및 농가경제와 매우 성격이 유사하다.<sup>3)</sup>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 주제분야에 대한 각종 설명이나 분석은 모두 이 4종의 통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개별경제는 그 기능에 따라 '경영'과 '가계'로 나눌 수 있는데, 경영(經營)은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주체를 말하며, 가계(家計)는 경영을 하지 않고 타 경제주체로부터 받는 봉급, 배당, 이자, 지대 등에 의해 소비를 하는 소비경제의 주체를 말한다.

한편 가구는 소득원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도시가구와 농가, 어가 및 임가 등으로 구분되므로 가계소득 통계 역시 일반 도시가구의 수지 통계를 작성하는 가계동향과 농가, 어가 및 임가의 수지를 다루는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 통계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통계의 목적은 <표 3>과 같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가통계의 작성 목적은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 농가소비지출, 노동투하량 등 각종 농가경제지표를 생산하여 농업 문제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가계동향과 농가경제, 임가경제 및 어가경제를 구분하여 추계하는 이유는 농가와 어가 및 임가는 일반적인 가계동향과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경상소득을 얻고,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이나 자산이전 등으로 소득을 얻거나 자궤리고 이러한 소득을 사용하여 음식료품 등 소비지출을 한다. 즉 이들은 생산활동에서 소득을 얻고, 소비활동

---

3) 임가경제는 2007년도에 통계청의 정기품질진단을 받았다.

<표 1> 가계소득 관련 통계의 주요 성격

통계명	최초 실시년도	작성기관	작성방법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1	표본추출방법	조사방법	작성주기	작성체계	조사목적	
가계동향조사	1963	통계청	조사통계	전국	가구	확률표본	배포(유치)	월	표본가구 →조사원 →지방청 →통계청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 모집단자료 등 각종경제, 사회정책에 필요한자료 제공,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대책비산정 및 국민주택공급 대상의 기준 설정자료	▶가구실태와 배우자어관한사항, ▶가계수지항목)
가계신용조사	2000	금융감독원	조사통계	전국	가구	확률표본	면접조사	1년	금융감독원국→통계청 조사대행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앞서 금융수요자인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선행적인과관계에 착안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예방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시 강화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	▶가구 일2개, 금융지 기타부채 1모 전망 1가
가계자산조사	2006	통계청	조사통계	전국	가구	확률표본	면접조사	5년	조사담당 공무원 → 지방청 → 통계청	가구의 자산(금융, 부동산 등) 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각종 경제, 사회, 복지정책이나 학문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가구 1부동산 7항
가전기기보급률및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1979	한국전력거래소	조사통계	전국	가구	확률표본	면접조사	2년	조사원→효성경영연구소(주)용역 →한국전력공사	전국 가구의 가정용 전력기기 보급현황 및 기기별 전력사용 행태를 파악하여 주택용 전력수요예측 및 가정용 전력사용행태 분석의 기초 자료	▶표본가구 가족수 등 ▶기기보유 소비전력 ▶기기처분 ▶기기이용 월별사용대

농가경제조사	1953	통계청	조사통계	전국	가구	확률표본	기타	1년	표본농가 →조사요원 →지방통계청 →통계청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농가지출, 노동투하량 등 각종 농가경제지표를 생산하여 농업문제 연구의 실증적 자료제공	▶농가의 농가의 자산
어가경제조사	1967	통계청	조사통계	전국	가구	확률표본	기타	1년	표본어가 →조사담당자 →지방청 →통계청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어업정책 수립과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일계부:어 노동투입내 물중자자소 ▶원부:가구 정도, 어업 건물자산, 물, 무형자 미사용구입
임가경제조사	2004	산림청	조사통계	전국	가구	확률표본	면접조사	1년	산림청(조사총괄), 민간조사기관	임가의 경제상황과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임업정책수립 및 임업경영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임가수입 ▶임가지출비
재정패널	2008	한국조세연구원	조사통계	전국	가구	확률표본	면접조사	1년	가구, 개인 → TNS Korea 조사업체 → 한국조세연구원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조세와 제정의 분배 및 재분배 효과 검증을 위한 기초 원시 자료의 구축	▶가구기본 현황, 개인 산및 부채 ▶소득및연 제현황(근로



을 위하여 지출을 하는 것이다.

반면 농가, 어가, 임가 등은 생산 활동과 지출활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소득과 가계소비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농가경제 및 어가 경제는 경영과 가계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경영단위인 동시에 가계단위로서 이중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농가경제는 크게 경영부문과 가계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영부문은 다시 농업경영부문과 농업외 경영부문으로 분류되며, 가계부문은 재산소득(배당, 이자, 지대)과 다른 경제주체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에 의한 소득 부문과 가계지출을 위한 소비경제 부문으로 분류된다. 한편 어가경제나 임가경제 역시 같은 특성을 지닌다.

## 나. 「가계소득」의 주요 통계

### 1) 정의 및 대상통계

본 연구 대상이 되는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등 통계는 각각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가계와 농가, 어가 및 임가 가계를 구분하여 수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 가계와 농가, 임가, 어가 등의 정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먼저 이들 통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작성 단위인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된다. 그리고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는 1가구로 조사되며,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가구로 조사된다. 또한 고용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1인의 가사사용인 또는 영업상사용인은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1가구로 조사되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한국인을 가구주로 하여 1가구로 조사된다.

<표 2> 「가계동향」의 가구 및 농가, 어가 및 임가의 정의

<p>가구의 정의 및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li> <li>-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는 1가구로 조사</li> <li>-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가구로 조사</li> <li>- 고용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1인의 가사사용인 또는 영업상사용인은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1가구로 조사</li> <li>-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한국인을 가구주로 하여 1가구로 조사</li> </ul>
<p>가계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가구(1인가구 포함)</li> <li>-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li> </ul>
<p>농가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지를 10a(약 300평)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소유의 경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li> <li>·남의 소유 경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li> <li>·경지로부터의 수확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에게 비료, 종자를 보조하여 주고 농사를 짓게 한 경우</li> <li>└ 영농조합·법인 등에 모내기, 수확 등을 위탁한 경우</li> </ul> </li> </ul> </li> <li>②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 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포함)</li> </ul> </li> </ul>
<p>※ 농가 예외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소유의 경지 전부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li> <li>- 남의 농사에 임금을 받고 고용된 가구원 밖에 없는 경우</li> </ul>
<p>임가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의 중 한 가지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작년 1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li> <li>② 최근 1년간 벌목 실적이 있는 가구</li> <li>③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li> <li>④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li> <li>⑤ 관상수업자에 등록된 가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실수를 일정 규모이상 재배하는 가구</li> <li>⑥ 밤 1,700평 ⑦ 대추 300평 ⑧ 호도 800평 ⑨ 잣 7,000평</li> <li>- 야생조수를 사육하는 가구</li> <li>⑩ 대동물(호랑이, 곰, 사자, 표범 등) 1마리</li> <li>⑪ 중동물(멧돼지, 오소리, 여우, 타조 등) 3마리</li> <li>⑫ 소동물(멧토끼, 꿩, 원앙, 기러기 등) 20마리 이상</li> </ul>
어가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을 하였으며, 가구관리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li> <li>① 반드시 “판매를 목적” 으로 어업활동이나 경영을 하여야 함</li> <li>② 지난 1년중 “1개월이상 어업활동” 을 한 1명 이상의 가구원이 있어야 함</li> <li>③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이어야 함(단, 아래의 어가포함)</li> <li style="margin-left: 20px;">[ 비어기, 금어기 등 일시적으로 어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구</li> <li style="margin-left: 20px;">[ 어선이나 양식장을 빌려서 경영하는 가구</li> <li style="margin-left: 20px;">[ 남의 어선이지만 승선하여 자기 어업활동을 한 후 자기 몫으로 분배받은 어획물에 판매권한이 있는 가구</li> </ul>
※ 어가 예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소비나 오락을 목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가구</li> <li>- 가구원 2명 이상을 합산해야 어업활동이 1개월 이상인 경우</li> <li>- 어선이나 양식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는 가구</li> <li>-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어업종사자가구</li> </ul>

주: 가사사용인은 고용주 및 그 가족과 함께 먹고 자며 주로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예로는 가정부 등이 있고, 영업상 사용인은 고용주 및 그 가족과 함께 먹고 자면서 주로 영업에 고용된 사람으로 점원 혹은 배달원 등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지침서』, 2009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2009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농산물) 지침서』, 2009

산림청, 『임가경제』, 2008

이러한 가구의 정의하에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에서 각각 조사하는 대상 가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가계동향에서 담당하는 가구는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가구(1인가구 포함)이고,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농가경제에서는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경지를 10a(약 300평)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와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자기 소유의 경지 전부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와 남의 농사에 임금을 받고 고용된 가구원 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 어가경제는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을 하였으며, 가구관리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넷째, 임가경제는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sup>4)</sup>와 유실수를 일정 규모이상 재배하는 가구, 야생조수를 사육하는 가구로 구성된다.

## 2) 작성목적

가계소득 통계의 작성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우리나라 전반적인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 개별 산업에 속해있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가 가계동향에 해당되고, 후자의 경우는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별 통계의 조사목적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크게 위에서 구분한 분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목적을 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통계는 가계동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가계의 조사를 모두 대표

---

4)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4>를 참조하십시오.

<표 3> 가계소득부문 개별 통계의 조사목적

통계명	조사목적
가계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li> <li>0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 자료 제공</li> <li>0 소득분배 수준측정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li> <li>0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li> <li>0 이주대책비 산정, 영세민 구호사업, 근로자 임금기준의 결정 등의 기준 제공</li> </ul>
농가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li> <li>- 농가소비지출, 노동투하량 등 각종 농가경제지표를 생산하여 농업문제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 제공</li> </ul>
어가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어업정책 수립과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li> <li>- 어가소비지출, 노동투하량 등 각종 어가경제지표를 생산하여 어업문제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 제공</li> </ul>
임가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경제의 동향과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과 임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li> <li>- 임가의 소비지출, 임업노동 투하량 등 임가경제 지표를 생산하여 임업문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li> </ul>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지침서』, 2009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2009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농산물) 지침서』, 2009  
 산림청, 『임가경제조사』, 2008

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지출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 자료 제공하거나, 소득분배 수준측정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며,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는 농가, 어가 및 임가의 경제동향과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과 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농가, 어가, 임가의 소비지출, 노동투하량 등 각종 농가, 어가 및 임가의 경제지표를 생산하여 농업, 어업 및 임업 문제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

### 3) 표본 설계

가계동향과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 조사는 <표 4>와 같이 표본설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가계동향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와 보통조사구내 가구 및 가구원을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7대 도시(특별시와 광역시)와 9개 도(道)로 우선 층화하고, 각 도에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다시 층화하여, 전국을 25개로 층화한 후, 999개를 표본조사구로 선정(1조사구당 평균 10가구)로 약 8,700 적격가구를 선정하였다.

둘째,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는 2008년 통계를 기준으로 2005년의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조사된 농가, 어가 및 임가의 가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즉 농가경제는 전국 560개 표본 조사구내 2,800농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어가경제는 전국 286개 표본 조사구내 1,144어를 조사대상으로, 임가경제는 1,100개 임가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표 4> 가계소득 주제 분야 통계의 모집단과 조사 표본

	모집단	조사 표본
가계동향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 조사구와 보통조사구내 가구 및 가구원을 조사모집단 (survey population)으로 설정	7대 도시(특별시와 광역시)와 9개 도(道)로 우선 층화하고, 각 도에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다시 층화하여, 전국을 25개로 층화한 후, 999개를 표본조사구로 선정(1조사구당 평균 10가구)로 약 8,700 적격가구
농가경제	200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조사된 1,272천 농가를 전체 모집단으로 하고 도별자료의 생산을 위하여 각 도의 농가를 부차 모집단으로 하였음	전국 560개 표본 조사구내 2,800 농가를 조사대상으로 함. 층화2단 추출법에 의해서 표본 농가를 선정하여 조사 층화는 전국의 9개 각 지역에 대해서 영농형태에 따라서 10개 층으로 구분하였고,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각 농가임
어가경제	200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조사된 79,942 어가를 전체 모집단으로 하였음	전국 286개 표본 조사구내 1,144 어가를 표본으로 선정. 2000년 인구주택조사구 3,333개 조사구 중 전업 및 겸업 어가수가 6호이상인 2,137조사구를 대상으로 몇 개의 도 또는 직할시를 병합하여 지역층을 구성하고, 각 지역층에서 유의적인 층화변수를 선택하여 층화함.
임가경제	2005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조사	임가경제조사는 층화 2단 추출법

	<p>된 총 97,108 임가를 모집단으로 정의</p>	<p>에 의해서 1,100개 표본 임가를 선정하여 조사함. 이때 층화는 전국의 9개 각 권역에 대해서 임가가 보유한 산림의 면적에 따라서 5개 층으로 구분하였으며, 1차 추출단위는 12가구 이상의 임가를 포함하고 있는 읍·면·동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각 임가로 총 1,100 임가를 분석에 사용</p>
--	--------------------------------	--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지침서』, 2009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2009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농산물) 지침서』, 2009  
산림청, 『임가경제』, 2008

#### 4) 가구의 자료 작성방법 및 조사체계

가계소득 주제 분야에 포함된 통계 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째, 가계부 혹은 일계부로 대상 가구가 가계부 혹은 일계부를 부여 받고 이를 기입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관련항목으로 최근 들어서는 종이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둘째, 면접방식이다. 이는 가계부 혹은 일계부 기장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또한 가구의 자산이나 부채 등 자산조사표를 조사할 때 사용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거주민들이 대체로 고령자이기 때문에 일계부 작성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면접조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계부문 통계의 작성 조사 체계는 <표 5>와 같다. 현재 가계소득 분야의 통계담당기관은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등은 통계청이 담당하고, 임가경제는 산림청이 담당한다. 이때, 농가경제와 어가경제는 통계청의 농어촌통계과가 가계동향은 사회복지통계과가 담당한다.



<표 5> 작성방법 및 주기

구분	작성방법
가계동향	1) 가계부: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관련항목으로 매월 조사 개시 전에 조사표(가계부)를 조사대상가구에 배부하여 가구에서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종이가계부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 2) 조사원 면접방식: 가구실태 관련항목
농가경제	1) 일계부: 표본농가에 일계부를 비치하여 매일매일의 농업경영 및 가계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내역을 어가에서 직접 기입하며, 농업노동 투입내역 및 농산물생산비 투입내역은 조사담당자가 직접 면접조사 2) 농가원부: 표본농가의 자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2회(자산 변동시는 수시 조사) 농가의 자산상태를 경영주와의 면접을 통하여 조사
어가경제	1) 일계부: 표본어가에 일계부를 비치하여 매일의 어업경영 및 가계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내역을 기입 2) 어가원부: 표본어가의 자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2회(자산 변동시는 수시 조사) 어가의 자산상태를 경영주와의 면접을 통하여 조사
임가경제	1) 일계부: 가구원 및 자산 변동 사항, 임산물 재배현황, 수입·지출 등을 기입 2) 임가원부: 가구원 현황, 임가자산, 임가부채 등을 사용하되 면접을 사용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지침서』, 2009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2009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농산물) 지침서』, 2009  
 산림청, 『임가경제』, 2008

<표 6> 조사체계

가계 조사	표본가구	⇒	조사원	⇒	지방청 사무소	⇒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
농가 경제	표본농가	⇒	조사담당자	⇒	지방청 사무소	⇒	통계청 농어촌통계과
어가 경제	표본어가	⇔	조사담당자	⇔	지방청 사무소 (출장소)	⇔	통계청 농어촌통계과
임가 경제	표본임가	⇒	조사담당자	⇒	용역회사	⇒	산림청 기획관리실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지침서』, 2009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2009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농산물) 지침서』, 2009

산림청, 『임가경제』, 2008

한편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의 표본가구는 조사담당자가 관리하며, 지방통계청이나 통계사무소 등에서 이를 취합하여 통계청의 해당부서에 보낸다. 한편 임가경제는 산림청이 작성하되, 통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작성한다.

## 5) 통계의 연혁

가계소득통계의 주요 연혁은 <표 7>과 같다. 이 중 가계동향은 1951년에 시작된 것으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임가경제는 2003년에 최초로 시범 실시되어 2005년에 비로소 승인통계가 될 정도로 새롭게 작성된 통계이다.

가계동향은 1951년 한국은행에서 부산 6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1963년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5대 비목별 품목 분류방식(식료품비, 주거비, 광

열비, 피복비, 잡비)에 의한 30개 도시를 대상(조사가구 1,700개)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는 1988년 전국 62개 도시(조사가구 4,500개)를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가계소비 지출을 9대 비목에서 10대 비목(교육·교양오락비를 교육과 교양오락비로 분리)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조사가구가 7,500개로 확대되었고, 조사 대상이 도시가계조사에서 전국가계조사로 확대되었으며 도시가계 통계에서 「가계동향」으로 개칭되었고, 2005년 1인 가구 조사 포함되었다.

농가경제는 1953년 농림부와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농촌실태조사」를 처음 실시되었고, 1954년부터는 「농촌실태조사」가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로 분리하여 실시되었다. 1962년 통계법에 따라 정부 공식통계로 지정되었고, 1962년부터 1998년까지 7차에 걸쳐 표본개편 되었으며 이어 1998년 7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되었다. 한편 2003년 표본개편(8차)과 함께 조사표 및 조사지침개편이 마련되었고, 2008년 표본개편(9차)과 함께 조사표 및 조사지침이 개선되었으며, 2009년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통합되었다.

어가경제는 1963년 2월 수산청에서 최초 조사 작성된 후 1963년 12월 수협중앙회에 이관·실시되었다가 1971년 일시 중단된 후 1972년 수산청이 다시 조사를 재개하였고, 1974년 5월 일반통계로 승인되었다. 1978년 4월 농림수산부 통계관실로 이관되었고, 1983년 ~ 2003년까지 5차에 걸쳐 표본개편 된 후, 1996년 9월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 이어 1998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되었고, 1999년 12월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변경된 후, 2008년 6차 표본개편과 함께 조사표 및 조사지침이 개편되었다.

임가경제는 2003년 표본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시범조사 실시되었고, 2004년 전국 표본 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조사 실시된 후, 2005년 일반통계(13623호, 2005년 4월 7일)로 승인되었다. 2006년 전국 표본 임가 1,000가구로 대상 확대 조사 실시되었고, 2007년 전국 표본 임가 1,100가구로 대상 확대 조사 실시되었다.

<표 7> 가계소득 관련 통계의 주요 연혁

	시작연도	기타
가계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1년 한국은행에서 부산 60가구 대상 조사 실시</li> <li>- 1963년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5대 비목별 품목 분류방식(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에 의한 30개 도시를 대상(조사가구 1,700개)으로 조사 실시</li> <li>- 1988년 전국 62개 도시(조사가구 4,500개)를 대상으로 확대,</li> <li>- 가계소비 지출을 9대 비목에서 10대 비목(교육·교양오락비를 교육과 교양오락비로 분리)으로 확대</li> <li>- 2003년 조사가구 7,500개, 도시가계조사에서 전국가계조사로 확대</li> <li>- 2005년 1인가구 조사 포함</li> </ul>	조사대상월 1일 ~ 말일 매분기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
농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3년 농림부와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농촌실태조사」를 처음 실시</li> <li>- 1954년 농림부가 「농촌실태조사」를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로 분리하여 실시</li> <li>- 1962년 통계법에 의한 정부 공식통계로 지정</li> <li>- 1962년부터 1998년까지 7차에 걸쳐 표본개편</li> <li>- 1998년 7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li> <li>- 2003년 표본개편(8차)과 함께 조사표 및 조사지침개편</li> <li>- 2008년 표본개편(9차)과 함께 조사표 및 조사지침개편</li> <li>- 2009년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 생산비조사로 통합</li> </ul>	매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통계청 농어촌통계과
어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3년 2월 수산청에서 최초 조사 작성</li> <li>- 1963년 12월 수협중앙회에 이관·실시(1971년 중단)</li> <li>- 1972년 수산청에서 조사재개</li> <li>- 1974년 5월 일반통계로 승인</li> <li>- 1978년 4월 농림수산부 통계관실로 이관</li> <li>- 1983년 ~ 2003년까지 5차에 걸쳐 표본개편</li> <li>- 1996년 9월 해양수산부로 이관</li> <li>- 1998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li> </ul>	매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통계청 농어촌통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 12월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변경</li> <li>- 2008년 6차 표본개편과 함께 조사표 및 조사지침개편</li> </ul>	
임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표본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시범조사 실시</li> <li>- 2004년 전국 표본 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조사 실시</li> <li>- 2005년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13623호, 2005년 4월 7일) 승인</li> <li>- 2006년 전국 표본 임가 1,000가구로 대상 확대 조사 실시</li> <li>- 2007년 전국 표본 임가 1,100가구로 대상 확대 조사 실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매년</p> <p>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조사, 산림청</p>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지침서』, 2009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2009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농산물) 지침서』, 2009  
산림청, 『임가경제』, 2008

#### 6) 「가계동향」과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의 주요 차이점

가계동향과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일반가구의 경우, 경영과 가계가 분리되어 작성되나 농가, 어가 및 임가의 경우 이것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개별경제는 그 기능에 따라 경영과 가계로 나눌 수 있는데, 경영(經營)은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주체를 말하며, 가계(家計)는 경영을 하지 않고 타 경제주체로부터 받는 봉급, 배당, 이자, 지대 등에 의해 소비를 하는 소비경제의 주체를 말한다.

가계동향에서 소득은 <표 8>과 같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과 같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 및 사회적현물, 이전소득 및 자산과부채의 변동으로 인한 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즉 가계동향의 대상 가구원들은 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에 거주하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근

무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게 된다.

한편 소득을 사용하는 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 12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추계된다.

그러나 농가나 어가 및 임가는 <표 9>과 같이 경영과 가계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경영단위인 동시에 가계단위로서 이중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농가경제는 크게 경영부문과 가계부문으로 나뉘어지는데, 경영부문은 다시 농업경영부문과 농업외경영부문으로 분류하며, 가계부문은 재산소득(배당, 이자, 지대)과 다른 경제주체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에 의한 소득 부문과 가계지출을 위한 소비경제 부문으로 분류된다.

농가의 수입에는 소득적 수입인 「농업수입」, 「농업외수입」, 「이전수입」, 「비경상수입」과 고정자산의 매각이나 예금인출 등에 의한 「재산적 수입」이 있다.<sup>5)</sup> 농가의 지출에는 소득적 지출인 「농업경영비」, 「농업외지출」, 가계 활동에 의한 지출인 「가계지출」과 고정자산의 구입 등에 의한 「재산적 지출」이 있다.<sup>6)</sup> 농가소득에 포함되는 수입을 「소득적 수입」이라 하는데 농업수입, 겸업수입, 사업외수입, 이전수입, 비경상수입을 말한다. 「소득적 수입」에서 「소득적 수입」을 올리는 데 소요된 경비 즉, 농업지출, 겸업지출, 사업외지출을 뺀 잔액을 「농가소득」이라고 한다.

한편 어가경제에서 어가소득은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소득은 어업총수입(어로수입, 양식수입, 어업잡수입)에서 어업경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때, 어업경영비는 어로지출, 양

5) 농산물의 판매나 농업임금 수입과 같이 재산증식이 일어나는 것은 「소득적 수입」이라 하며, 예금의 인출, 부채의 차입, 고정자산 매각 등에 의한 수입은 재산형태의 변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재산적수입」이라 한다.

6) 「농업경영비」, 「농업외지출」과 같이 전부가 그 해의 비용이라 생각되는 것이 「소득적 지출」이라 하며, 현금의 은행예입, 부채의 상환, 고정자산 구입 등에 의한 지출은 재산형태의 변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재산적 지출」이라 한다.

〈표 8〉 「가계동향」의 수입 및 지출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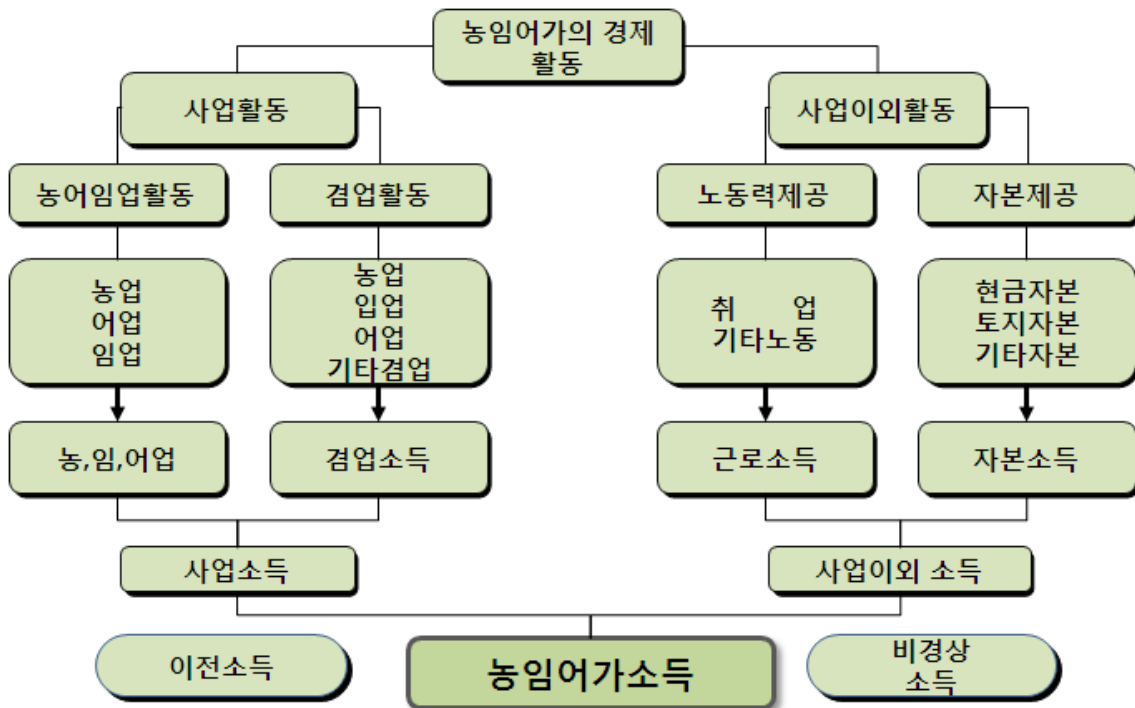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품 목
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사업소득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주택 등 임대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의제이자소득, 기타재산소득
		이전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가구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
	사회적현물이전		사회적현물이전
기타 수입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저축 및 보험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부동산관련 빌린 돈, 월부 및 외상, 기타빌린 돈
	자산이전		자산이전수입
가계 지출	소비지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육류, 육류가공품,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및 담배	주류, 담배
		의류 및 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 및 수도광열	실제주거비, 의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기타주거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가사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	의약품, 기타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보건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교통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관련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비소비지출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이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2009

<표 9>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에서 경영과 가계의 관계

농가경제, 임가경제, 어가경제				
경 영 (생산주체)	농업, 어업, 임업경영	소득수지	농업, 어업, 임업수지	
	농업, 어업, 임업외경영			
가 계 (소비주체)	재산이용을 통한 소득부문 근로소득 부문		이 전 소 득	농업, 어업, 임업외수지
	소득이전 부문			
	소비경제 부문	소 비 지 출	비 소 비 지 출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지침서』, 2009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농산물) 지침서』, 2009  
 산림청, 『임가경제조사』, 2008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지침서』, 2009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2009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농산물) 지침서』, 2009  
 산림청, 『임가경제』, 2008

<그림 1> 농가, 어가, 임가의 소득 분류



식지출로 분류한다. 어업외소득은 겸업수입에서 겸업지출을 뺀 겸업소득과 사업외수입에서 사업외지출을 제외한 사업외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가경제 역시 임가소득은 임업순소득(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업소득은 임업총수입에서 임업경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때, 임업경영비는 현금, 현물,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 임업지출로 구성된다. 임업외소득은 겸업수입에서 겸업지출을 뺀 겸업소득과 사업외수입에서 사업외지출을 제외한 사업외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 2. 「가계소득」 주제 연구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소득에 관련된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 통계는 같은 주제에 속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조사 작성되고 또한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련 방법론에 기초하여 추계되어 발표된다. 그리고 각 통계의 담당부서는 상호간의 연관성이 떨어진 채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제연구는 이러한 통계의 각각을 분석하기 보다는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들 통계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때 주제연구는 개별통계의 성격과 품질진단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다. 즉 개별통계의 진단결과나 성격 등을 독립적으로 볼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 통계들의 특성을 조사하고, 또한 개별 통계의 차이점 역시 살펴본다.

한편 주제연구에서는 관련 외국의 주제 분야 통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즉 유사한 목적을 갖는 통계가 작성기관이나 주기 작성방법 등에서 상호 차이를 보일 경우, 새롭게 통계개선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선진국의 통계를 조사하여 여러 시사점을 찾도록 한다.

## 제 2 절 「가계소득」 통계 작성현황과 특징

### 1. 국내 통계 작성 현황

#### 가. 「가계동향」

##### 1) 기본 현황

가계동향조사는 1962년에 지정통계(제10106호)로 승인되었으며 현재까지 매월 실시되고 있다. 가계동향은 최초 조사대상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구로 제한함으로써 도시가계조사이라는 명칭으로 조사되어 왔으며, 2003년 표본개편을 통해 가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 품목별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소득항목등 보다 강화하여 '가계동향조사'라 칭하게 되었다. 가계동향은 통계법 제 18조에 통계작성 근거를 두고 사회복지통계과에서 가공하여 보고하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동향의 주요연혁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가계동향의 주요연혁

구분	주요연혁
1963년	통계청으로 이관
1969년	다목적 표본 설계(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인구동태표본조사에도 사용)를 적용하여 조사 실시
1975년	전 비목에 대한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이전에는 식료품비만 가계부 기장방식이며 나머지 비목은 분기별로 면접조사)
1982년	가계소비 지출을 5대 비목에서 9대 비목(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 피복, 보건, 교육교양오락, 교통, 기타)으로 개편
1983년	가계소비 지출을 9대 비목에서 10대 비목(교육·교양오락비를 교육과

	교양오락비로 분리)으로 확대
2003년	도시가계조사에서 전국가계조사로 확대
2005년	다목적 연동표본방식 도입, 1인가구 조사
2008년	「가계동향조사」로 명칭변경 국제노동기구(ILO)의 건의에 따라 품목별 분류 방식을 채택

## 2) 조사목적

가계동향의 조사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국민생활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산정 기초자료, 셋째,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입안 기초자료, 넷째, 소득분배지표 작성, 끝으로 국민계정 등 총량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조사목적이 있다.

## 3)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 농가, 어가,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 및 기타 겸업가구 등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제외한다.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를 그 조사범위로 하고 있으며, 개별가구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전국의 동 지역 및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가계동향의 조사가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대되어 왔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가계동향」의 조사대상 변천

구분	표본 개편	조사가구
1963년	30개 도시를 대상	1,700개
1969년	다목적 표본 설계	1,800개

1972년	다목적 표본 1차 개편	-
1977년	다목적 표본 2차 개편	4,000개
1983년	다목적 표본 3차 개편	4,400개
1988년	다목적 표본 4차 개편 전국 62개 도시	4,500개
1993년	다목적 표본 5차 개편	5,500개
1998년	다목적 표본 6차 개편	5,500개
2003년	다목적 표본 7차 개편	7,500개
2009년	-	8,700개

#### 4) 조사내용 및 조사기간

조사내용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가구주에 관한 사항, 가구구성에 관한 사항, 주거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수입과 지출의 항목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의에 따라 품목별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사대상기간(시점)은 가구실태의 경우 매월 가구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가계부를 통하여 연중 소득 및 지출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를 위한 실제 준비대상기간은 전월 28일에서 말일이다.

#### 5) 조사방법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통계로써 종이 가계부에 기반을 둔 면접조사와 전자가계부를 이용한 인터넷 조사가 병용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구실태에 관한 사항은 면접타계식,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가계부기장에 의한 자계식 조사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특징적으로 가계동향은 표본을 관리함에 있어서 연동표본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동표본 가구 관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응답자 부담 경감, 모집단 변화의 효율적 반영, 표본개편시 통계의 시계열 단절 방지, 조사원 매너리즘 방지 등에 있다.

기본방향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을 동일 가구에서 조사하는 다목적 표본을 기준으로 2005년 1월부터 전국적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동표본제의 적용에 따라 가구별 조사기간은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교체단위는 조사구내의 구역(5가구)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 개의 조사구내 가구를 완전 교체하는데 4개월 소요된다.

## 6) 공표시기 및 방법

이러한 형식과 절차를 걸쳐 작성된 통계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하며, 『가계동향조사 보고서(디지털 간행물)』, 원시(raw)자료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덧붙여 보도자료, 한국통계월보에 조사 대상 분기 익익월 말을 기준으로 수록되고 있으며, 조사대상년도 익년 5월말에 가계동향조사연보를 통해 공표되고 있다.

### 나. 「농가경제」

#### 1) 기본현황

농가경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10142호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조사통계이다.

1953년 농림부와 한국은행이 「농촌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62년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제8호로 지정, 1998년 7월 1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되었다.

#### 2) 조사목적

농가경제의 조사 목적은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농가 소비지출, 노동투하량 등 각종 농가경제지표를 생산하여 농업문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 제공하는데 있다.

### 3) 조사대상

농가경제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즉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한다.

단, 단독(1인) 및 외국인 가구, 비혈연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농, 농업시험장, 학교, 종교단체 및 법인등 준농가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4)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일계부를 통하여 작물재배현황, 도정량, 수입, 지출, 농업노동투입내역, 농산물생산비투입내역, 자가농업생산물증자가소비량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농가원부(자산조사표)를 통하여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유동자산(당좌자산, 재고자산) 등의 농가자산, 농가부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5) 주요연혁

농가경제의 주요연혁은 아래와 <표 12>과 같다.

<표 12> 「농가경제」 주요연혁

연도	연혁
1953년	농림부와 한국은행이 「농촌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처음 실시
1954년	농림부가 「농촌실태조사」를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로 분리하여 실시
1962년	통계법 제 18 조에 의한 지정통계 10142호

1961년	전국 농가 중 80개 조사구 1,182개 농가를 임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층화3단 확률비례 추출법 도입
1973년	1970년 농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160개조사구 2,518농가
1977년	1970년 농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225개조사구 3,375농가(지역별통계생산)
1983년	1980년 농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200개조사구 2,000농가(전국단일모집단)
1988년	1980년 농업총조사 및 1985년 간이농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310개조사구 3,100 농가 선정(도단위지역통계산출)
1993년	1990년 농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314개조사구 3,140농가선정(영농형태별, 지대별층화)
1998년	1995년 농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314개조사구 3,140농가선정(전국추계시특별시, 광역시포함)
1998년 7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
2003년	표본개편(8차)과 함께 조사표 및 조사지침 개편
2003년	2000년 농업총조사결과이용 320개 조사구 3,200농가선정(영농형태별 논벼층을 2개층으로층화, 전국추정정도를높이기위해논벼층규모는줄이고다른층은상대적으로늘림)

## 6) 공표방법 및 시기

이러한 형식과 절차를 걸쳐 작성된 통계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하며, 보도자료, 농가경제조사, KOSIS 농가경제DB, 디지털간행물 간행물(농가경제통계)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공표시기는 보도자료·인터넷 게재의 경우 조사대상년도 익년 4월경, 「농가경제통계」 발간의 경우 조사대상년도 익년 5월경이다. 공표내용은 전국(서울 및 6대광역시 포함), 전·겸업별, 주·부업별, 영농형태별, 경지규모별, 경영주연령별, 가구원규모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된 내용이 공표된다.

## 7) 주요특징

## (가) 농가경제와 경영, 가계의 관계

농가경제는 경영과 가계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경영단위인 동시에 가계단위로서 이중성을 지닌다. 농가경제는 크게 경영부문과 가계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영부문은 다시 농업경영부문과 농업외경영부문으로 분류하며, 가계부문은 재산소득(배당, 이자, 지대)과 다른 경제주체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에 의한 소득 부문과 가계지출을 위한 소비경제 부문으로 분류된다.

## (나) 농가소득 산출과정

농가의 수입에는 소득적 수입인 농업수입, 농업외수입, 이전수입, 비경상수입과 고정자산의 매각이나 예금인출 등에 의한 재산적수입이 있다.

농산물의 판매나 농업임금 수입과 같이 재산증식이 일어나는 것은 소득적 수입이라 하며, 예금의 인출, 부채의 차입, 고정자산 매각 등에 의한 수입은 재산형태의 변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재산적 수입이라 한다.

농가의 지출에는 소득적 지출인 농업경영비, 농업외지출, 가계 활동에 의한 지출인 가계지출과 고정자산의 구입 등에 의한 재산적 지출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가소득 산출과정은 <그림 2>와 같다.

농업경영비, 농업외지출과 같이 전부가 그 해의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소득적 지출이라 하며, 현금의 은행예입, 부채의 상환, 고정자산 구입 등에 의한 지출은 재산형태의 변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재산적지출이 된다.

농가소득에 포함되는 수입을 소득적 수입이라고 하는데 농업수입, 겸업수입, 사업외수입, 이전수입, 비경상수입을 말한다. 소득적 수입에서 소득적 수입을 올리는 데 소요된 경비 즉, 농업지출, 겸업지출, 사업외 지출을 뺀 잔액을 농가소득이라 한다.



<표 13> 「농가경제」의 경영과 가계의 관계

농가경제조사				
경 영 (생산주체)	농업경영	소득수지	농업수지	
	농업외경영		농업외수지	
가 계 (소비주체)	재산이용을 통한 소득부문			이전수입
	근로소득 부문		비경상수입	
	소득이전 부문	소비지출		
	소비경제 부문	비소비지출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지침서』, 2009

<그림 2> 농가소득 산출과정

농가소득에서 가계지출 중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농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농가의 소득을 처분가능소득이라 한다.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을 뺀 잔액을 농가경제잉여 또는 적자라고 한다.

## 다. 「어가경제」

### 1) 조사목적

어가경제조사는 통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44호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조사통계이며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어업정책 수립과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조사대상

어가경제는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 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를 중심으로 해면어업 어선 비사용가구, 해면어업 무동력선 사용가구, 해면어업 동력선 사용가구, 해면어업 양식업 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 하고 있다.

단, 단독가구(1인가구) 및 외국인 가구, 비혈연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 해면어업 임금근로자 가구, 내수면어업가구 및 원양어업가구 등은 조사대상 제외가구이다.

### 3)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일계부(자계식 기입조사)를 중심으로 어가에 비치하여 매일

발생하는 어업 경영상황과 가계수지상황을 어가에서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며, 원부는 연2회(연초, 연말) 조사원이 어가 재산(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경영주와 면접조사하며 연중 변동상황은 수시로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일계부는 어선 및 어장면적, 작물재배현황, 수입 및 지출, 어업노동 투입내역, 수산물생산량, 자가생산한 농수산물중 자가소비량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부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어가자산을 조사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정자산의 경우 토지, 건물, 선박및기계기구비품, 대식물, 대동물의 유형자산과 어업권, 영업권, 전세권 등의 무형자산으로 구분하며, 유동자산의 경우 현금, 예금, 보험금, 유가증권 등의 당좌자산과 미처분농수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사용중인 어업용자재 등의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가부채의 경우 어업경영자이외의 채권자가 어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청구권을 말하며 차입금과 미불금 및 선수금으로 구분하여 조사표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 4) 공표방법 및 시기

이러한 형식과 절차를 걸쳐 작성된 통계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하며, 보도자료, 어가경제, KOSIS 어가경제DB, 디지털간행물 간행물(어가경제통계)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공표시기는 보도자료·인터넷 게재의 경우 조사대상년도 익년 4월경, 「어가경제통계」 발간의 경우 조사대상년도 익년 5월경이다. 공표내용은 전국(서울 및 6대광역시 포함), 주부업별, 어업형태별, 가구주연령별 등에 따른 어가소득 및 가계비, 부채 및 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된 내용이 공표되는 것이다.

\* 통계수록 DB사이트 : <http://www.kosis.kr/>

#### 5) 주요연혁

어가경제의 주요 연혁은 <표 14>와 같다. 어가경제는 1963년 수산청에서 시작되어 1978년부터 농림수산부에 작성되었으나 1998년부터 통계청 농수산 통계과가 작성하고 있다.

<표 14> 「어가경제」 주요연혁

연도	연혁
1963년 2월	수산청에서 최초로 작성
1963년 12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 이관
1971년	제반 여건의 미숙으로 조사중단
1972년	수산청에서 조사재개
1974년 5월	일반통계 제126-21-01호로 승인
1978년 4월	농수산부 직제개정으로 농림수산부 통계관실로 이관
1979년	조사결과 첫 공표
1983년	표본개편(50개 조사지구, 750호 표본어가)
1989년	표본개편(60개 조사지구, 815호 표본어가)
1993년	표본개편(121개 조사지구, 910호 표본어가)
1996년 8월	농림부로부터 해양수산부로 수산통계업무가 이관
1998년 7월	통계청 농수산통계과로 이관 조사
1999년	표본개편(170개 조사지구, 1360호 표본어가)
1999년 12월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변경
2003년	표본개편(276개 조사지구, 1175호 표본어가)

## 6) 주요특징

### (가) 어가경제의 경영과 가계의 관계

어가경제는 경영과 가계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경영단위인 동시에 가계단위로서 이중성을 지닌다. 어가경제는 크게 경영부문과 가계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영부문은 다시 어업경영부문과 어업외경영부문으로 분류하며, 가계부문은 재산소득(배당, 이자, 지대)과 다른 경제주체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에 의한 소득 부문과 가계지출을 위한 소비경제 부문으로 분류된다.

<표 15> 「어가경제」의 경영과 가계의 관계

어가경제조사			
경 영 (생산주체)	어 업 경 영	소득수지	어업수지
	어 업 외 경 영		어업외수지
가 계 (소비주체)	재 산 이 용 을 통한 소득부문		
	근로소득 부문		비 경 상 수 입
	소득이전 부문	소 비 지 출	
	소비경제 부문	비 소 비 지 출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지침서』, 2009

<그림 3> 어가소득 산출과정

## (나) 어가소득 산출과정

어업소득은 어업총수입(어로수입, 양식수입, 어업잡수입)에서 어업 경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어업경영비는 어로지출, 양식지출로 분류한다. 어업 외소득은 겸업수입에서 겸업지출을 뺀 겸업소득과 사업외수입에서 사업외지출을 제외한 사업외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분류하고 공적보조금은 어업보조금과 기타 공적보조금을 포함한다. 비경상소득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중 일시적인 것으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사고보상금 등을 포함한다.

어가부채는 차입처 및 용도별 분류를 추가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종류별 분류로는 차입금, 미불금 및 선수금이 있으며, 기간별 분류로는 단기부채, 장기부채로 나누어진다. 차입처 분류는 금융기관과 개인으로 나누어지며, 용도별로는 어로용, 양식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으로 구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가소득 산출과정은 <그림 3>과 같다.

## 라. 「임가경제」

### 1) 조사목적

임가경제 조사는 임가경제의 동향과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과 임업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이 조사한다. 또 임가경제 조사는 임업관련 학계에서의 연구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2) 조사대상

임가경제 조사대상 임가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 즉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1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 해당연도에 벌목

실적이 있는 가구, 연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관상수업에 등록된 가구, 유실수를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가구(밤 5,620㎡, 대추 992㎡, 호도 2,645㎡, 잣 23,141㎡)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이다. 모집단은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 조사된 총 97,108임가이다.

조사항목은 응답자가 작성하는 일계부에 따르는데 일계부에는 임산물 재배 현황, 수입·지출, 임업노동 투입내역, 동력사용시간, 자가 임업 생산물 중 자가 소비량이 있다. 임가 원부(자산조사표)에는 가구원현황, 임가 자산(임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용역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자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유무형의 물품·재화나 권리와 같은 구체적인 실체), 임가 부채(임업경영자 이외의 채권자가 임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청구권을 말하며,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채무로서 연말차입금과 미불금 및 선수금이 해당)가 있다.

임가의 구분은 전업임가와 겸업임가로 나눌 수 있고, 겸업임가는 임업주업과 임업부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임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이며, 겸업임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포함한다. 임업주업은 겸업임가 중 임업소득이 기타 가계소득보다 많거나 같은 임가를 포함하며, 임업부업은 겸업임가 중 임업소득이 기타 가계소득보다 적은 임가를 포함한다.

### 3) 조사방법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전국 1100 임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계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조사하고, 임가 원부에 의한 조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조사(년1회)하였다. 단, 신규 패널 임가는 구축시점과 연말에 각1회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경영주에 의한 자기기업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장능력이 없는 임가에 대해서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따른다.

#### 4) 공표방법 및 시기

임가경제조사의 결과공표 주기는 연간이며, 공표내용은 전국(서울 및 6대광역시포함), 전/겸업별, 업종별, 임지규모별, 경영주연령별, 가구원규모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이때, 임가경제 통계는 산림청 (<http://www.fores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5) 주요연혁

임가경제는 2003년 처음 실시된 통계이다. 당시 표본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2004년에 전국 표본임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임가경제는 2005년에 일반통계로 승인받았고 매년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2007년 조사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전국 1,100 임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08년 조사에서는 전국 1,126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 2. 관련 해외 통계 작성 현황

### 가. 「가계동향」

#### 1) 일본

일본은 가계소득 부문 통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수지, 농가, 임가, 어가 수지 등의 통계를 작성한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가계수지에서는 전국



민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집중한 반면, 농가, 임가 어가 등의 수지 통계는 개별 산업의 경영수지에 집중하여 작성한다.

일본의 경우 가계소득 및 지출 통계는 “가계소득 및 지출 조사”(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로 불리어지며,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서 작성 발표한다.

일본 가계수지의 작성 목적은 가계수지의 수준과 구조를 전체 및 각종 특성별로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산출 기준으로 사용하고, 가계부문의 경제동향, 개별 상품의 수요 등의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일본 통계국은 가계소비지수를 매월 작성하여 주요 경기지표로 활용하며 매월 말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표한다.

일본 가계소득 및 지출조사에서는 일본내의 1인 학생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다음 가구들은 제외한다.7)

-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가구 중에서 동일 거처 내에서 영업활동과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가구
- 가사사용인이나 영업상 사용인(비혈연가구원)이 4인 이상 동거하는 가구
- 장기출타(3개월 이상) 가구
-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가구나 외국인 1인가구

가계조사는 최초 1946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가구의 지출 정보 조사(Consumer Price Survey)와 1948년 시작된 가구소득조사(Familu Income Survey)에 기원한 것이다. 이들 두 조사는 1950년 9월 가계조사로 통합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일본의 최초 가계조사는 1962년까지 도시지역 가구의 통계만을 작성하였

---

7) 1인 학생가구는 조사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부모로부터 송금 받아 이용하며, 따로 일본 문부성에서 조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다. 그러나 점차 필요성 증대로 표본수를 확대하여 결국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즉 기존의 28개 시에서 4,200가구의 표본조사에서 170개 구역의 약 8000 표본조사로 확대되었다. 한편 1999년 7월에는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포함되었고, 2000년 1월부터 농업, 어업, 임업 가구 통계가 발표되었고, 2002년 1월부터는 1인가구가 포함되었고, 표본수 역시 기존의 8000 가구내외에서 9000가구내외로 확대되었다.

일본 가계조사의 조사내용 및 방법은 크게 다음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가구표로 이는 가구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개시전에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가계부를 통한 조사이다. 이는 개별 조사가구에 가계부를 제공하고, 각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게 하여 매일 이를 수취하는 것이다. 셋째는 연간수입조사표로 이는 조사가구의 가계부를 통합하여 연간 수입을 확정짓고, 넷째, 가계자산조사표는 1인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에서 저축과 부채를 조사하는 것이다.

<표 16> 일본 가계조사의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표 유형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시기	기업자
가구표	가구특성	전가구	조사개시전	면접조사
가계부	수입	근로자 및 무직가구	매월	조사가구
	지출	전가구		
연간수입조사표	연간수입	전가구	연동 첫달 후반	조사가구
가계자산조사표	저축 및 부채	전가구 (1인 제외)	연동 3개월째	조사가구

자료: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Guide to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2007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Outline of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009

일본 총무성, 家計調査の概要, 2009

현재 일본의 가구조사는 약 9,000가구의 표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표본조사 방법은 3단계 층화추출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일본 전역을 16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를 다시 1,346 조사구로 구분하여 약 9,000 조사가구를 선정한다. 한편 응답거부시 30,000가구 내의 유사가구로 대체토록 하여 9,000가구의 응답자료 확보한다. 2008년 현재 평균적으로 3.4가구중 1가구의 응답가구를 확보하고 있다. 가구별 조사기간은 6개월(1인 가구는 3개월)이며 매월 1/6가구(약 1,600가구)씩 연동교체한다. 연동편입 첫 달의 응답결과는 소비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 등이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추정방법 적용 등은 없고 조사원의 노력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조사가 추이 분석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 가계조사에서는 응답부담 경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 표본(경활표본 이용 등)은 이용하지 않는다.

<표 17> 조사가구 할당표

지역	조사지역	2인 이상 가구 조사가구	1인가구 조사가구
전국	168	8076	745
인구5만이상 도시	99	7020	585
도쿄의 구지역	1	408	34
13개 대도시	13	1428	119
현정부도시	35	3432	286
기타 도시	50	1752	146
인구 5만이하	21	480	40
소도시와 시골	48	576	48
원룸(1인가구)	11	-	72

자료: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Outline of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009*

일본 총무성, 家計調査の概要, 2009

한편 실제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한다. 이는 일본은 지방 통계조사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딩업무 등을 분산시켜 집계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15일 주기로 가계부를 회수하고 있다. 즉 가계조사의 업무 부담이 인구센서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과중되기 때문이다. 이후 총무성 통계국에서 항목분류(코딩) 등을 거쳐 집계 및 공표한다.

일본 가계조사의 조사 내용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가계동향 통계의 조사내용과 일치하나 그 분류에서는 일부 차이가 난다. 먼저 소득부문에서는 수입은 실수입과 실수입이외의 수입으로 구분되고, 실수입은 다시 경상수입과 특별수입으로 구분된다. 한편 소비지출은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 및 가사용품, 피복, 의료보건, 교통통신, 교육, 교양오락, 기타 지출 등 10개 항목으로 구분된다.<sup>8)</sup> 그리고 각각의 항목은 다시 세세한 항목을 포함하게 된다.

가계수지는 다음과 같이 발표된다. 먼저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수지는 월별, 분기별 및 연간 공표된다. 이때, 월 및 분기별로는 소득 및 지출추이, 월별 계절조정지수, 항목별, 재별, 선택/기본적 지출별 등이 발표되고, 연간으로는 63개 지역(10개 지방, 4개 대도시 및 49개 도도부현청 소재지)별, 연령대별, 연간수입 5분위별 등의 가계수지가 발표된다. 도도부현 청소재지(96표본가구) 등의 경우 표본규모가 작아서 표본오차에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공표되고 있다. 이 경우 일본 농림수산청은 이용자들에게 정확도제고를 위하여 수년간 평균치, 인근지역과 통합추정치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1인 가구 및 전체가구 가계수지는 분기별 및 연간으로 공표되고 있으며, 가계

---

8) 일본의 가계조사에서 구체적인 항목 구분을 우리나라와 항목구분과 비교하려면 <표 8>과 <표 18>을 비교하면 된다. 먼저 소득면에서 양국 모두 경상소득 및 비경상소득의 구분이나 이에 해당하는 항목 등은 대체로 비슷하다. 한편 지출에서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기타 지출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소비지출내에서 세분류 항목구분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분류 항목이 12개로 구분되는 것에 반하여 일본은 10개 항목으로 구분되고 그 구성도 일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세분류의 각 항목내에 포함되는 내용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교통과 통신서비스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일본은 이것이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 항목이 각각 포함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자산은 분기별 및 연간으로 공표되고 있다.

한편 조사자료 발표 시기는 월간자료는 조사 익월 말일경에 간단한 수치가 발표되고, 조사 익월 3일에 전반적인 표가 발표되며, 분기자료는 분기 마친 후 익월에, 연간 자료는 다음연도 시작 후 익월에 발표된다.9)

<표 18> 일본 「가계조사」의 수입 및 지출항목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품 목
수입	실수입 (소득)	경상수입	근로수입, 사업내직수입, 농임어업수입, 기타 경상수입 (재산수입, 사회보장수입)
		특별수입	수증금(증여금 및 기타)
	실수입이외의 수입		예금 인출 및 보험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지출	소비지출	1. 식료품	1.1 곡류, 1.2 어류, 1.3 육류, 1.4 유제품 및 달걀, 1.5 야채 및 해조류, 1.6 과일, 1.7 유지 및 조미료, 1.8 과자류, 1.9 조리식품, 1.10 음료, 1.11 주류, 1.12 외식, 1.13 기숙사 식비
		2. 주거	2.1 주거비, 2.2 주택유지 및 수선
		3. 광열수도	3.1 전기요금, 3.2 가스요금, 3.3 기타광열비, 3.4 상하수도요
		4. 가구 가사용품	4.1 가구 및 관련 서비스, 4.2 실내장비 및 장식품, 4.3 침구, 4.4 가사용품잡화, 4.5 가사용소모품, 4.6 가사서비스
		5. 피복	5.1 일본 전통의복, 5.2 양복, 5.3 셔츠 및 스웨터, 5.4 내의, 5.6 생사 및 직물, 5.7 기타 의복, 5.7 신발, 5.8 피복 관련 서비스
		6. 의료보건	6.1 의약품, 6.2 건강유지용품, 6.3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6.4 의료서비스
		7. 교통통신	7.1 교통운임, 7.2 자동차관련비, 7.3 통신요금
		8. 교육	8.1 수업료 등, 8.2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8.3 학원비
		9. 교양오락	9.1 교양오락용 내구재, 9.2 교육오락용품, 9.3 서적인쇄물, 9.4 교육오락서비스
		10. 기타 지출	10.1 제잡비(이미용서비스, 담배), 10.2 기타, 10.3 교제비(외식 등), 10.4 국내학생에 송금
	비소비지출		직접세, 사회보장료 등
기타 지출		예금 및 저축, 보험료, 유가증권매입 등	

자료: 일본 총무성, Income and Expenditure Classification Table, 가계조사, <http://www.stat.go.jp/data/kakei/index.htm>

9) 예를 들어, 1월 조사 자료의 잠정치는 2월말에 발표되고, 3월초에 확정치가 인쇄되어 발표된다. 한편, 분기자료는 1/4분기 자료가 5월 중순에 발표되고, 연간자료는 2월 중순에 발표된다.

한편 일본의 가계조사는 월간 통계와 연간통계 작성 내용이 차이가 난다. 즉 일반 도시가계의 경우, 월별로 소득과 지출을 모두 조사하지만 농가, 어가, 임가는 지출은 월별로 작성하여 발표하지만 소득은 연간으로만 발표한다. 즉 4계절이 뚜렷한 일본에서 농가나 어가, 및 임가의 소득은 계절성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월별로 작성할 경우 의미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sup>10)</sup> 다만 지출 통계는 월별 계절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월별 자료에 포함한다. 그리고 농업, 어업 및 임업을 부업으로 하는 가계의 경우에도 이를 농업, 어업 및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연간소득에 포함한다.

## 2) 미국

우리나라의 가계동향과 유사한 통계조사로서 미국에는 ‘소비자지출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가 있다. 이는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가 매년 작성하는 것이다.

미국내 최초의 소비자지출조사는 1888년~1891년 노동자의 지출형태를 알기위하여 실시된 것이다. 이후 1901년, 1917~1919년, 1934~1936년, 1935~1936년, 1950, 1960~1961년, 1972~1973년 등 8번에 걸쳐 10 ~12년의 부정기 소비자지출 조사를 실시하였고, 1979년부터 비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소비자지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미국 소비자지출조사의 목적은 첫째,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각 품목별 가중치를 추정하고, 둘째, 미국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sup>11)</sup>

10) 예를 들어 논농사를 주로 하는 농가는 수확이 이루어지는 9월~11월 사이에만 소득이 발생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소득이 없게 된다. 즉 계절성이 매우 크게 된다.

11) "The objectives of the survey are to provide the basis for revising the weights and associated pricing samples for the CPI and to meet the need for timely and detailed

미국 소비자지출조사는 면접조사와 가계부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각각 7,500가구의 표본을 사용하고, 표본추출방법은 각 주내에서 다단계 층화집락 추출방법을 따른다.

즉 매월 실시되는 가계부조사에서는 연속된 2주에 걸쳐 1주간 지출내역을 조사하는 것으로 식료품 등 규모가 작고 자주 구입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매 분기 실시되는 면접조사에서는 5분기간 분기별 큰 항목에 대한 지출내역으로 주로 부동산, 자동차, 전자제품 등 큰 항목과 월세, 공과금, 보험 등 비교적 정기적인 지출항목을 조사한다. 즉 가계부조사는 매일 지출한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면접조사는 비교적 큰 지출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분기에 연간소득 관련항목을 부가 조사한다.

모집단으로는 비시설 가구(the total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에 거주하는 인구로 도시와 농촌의 소비자단위가 대상으로 모두 포함된다. 이때 소비자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혈연, 결혼, 입양 및 그 밖의 법적 계약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모든 구성원들, 둘째, 혼자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 하는 사람, 개인집이나 하숙집에서 방만 빌려 사는 사람, 여관이나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는 사람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단위, 셋째, 두 사람 이상이 수입을 모아서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소비지출을 하며 사는 사람들, 대학이 지원하는 집에서 사는 학생들은 개별적 단위로 샘플에 포함한다.

면접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면접조사하며, 각 조사원은 감독권(Supervisor)에 의해 관리된다. 이때 조사원은 노동통계국(BLS)에서 후원하여 미국센서스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하거나 가계부를 배포 및 회수하며, 노동통계국(BLS)은 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

information on the spending patterns of different types of families." Chapter 16. Consumer expenditures and income, BLS Handbook of Method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9 [http://www.bls.gov/opus/hom/homch16\\_a.htm](http://www.bls.gov/opus/hom/homch16_a.htm)

### 3) 캐나다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 가구 지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년 가구지출조사(Household Spending)를 작성한다. 가구지출조사는 크게 (1) 정부 각부서가 관련정책 수립, (2) 사회 각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각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3) 법률적으로 어린이 양육 보조금 결정, (4) 노동자의 임금이나 생활비 결정 과정, (5) 개별 가구가 소비 지출패턴을 결정할 때 등에 사용된다.

가구지출조사는 1969년부터 실시되었던 가정지출조사(Family Expenditure Survey)와 가구시설조사(Household Facilities and Equipment Survey)를 1997년 통합하면서 시작되었고, 2003년 가구소유자 수선 조사(Homeowner Repair and Renovation Survey)도 함께 되었다.<sup>12)</sup> 이때 통계청은 통계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를 1996년의 14,765 가구에서 23,842가구로 62% 내외 늘린 반면, 질문수도 각 지출항목중 연간 지출금액으로 국한되게 다소 줄였다.

가구지출조사는 캐나다 내 모든 가구(Private household)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캐나다 전국의 노동력조사(LFS) 추출틀을 이용하고, 다단계 층화 집락추출방식을 사용하면서, 거처(dwelling)은 계통추출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인디안보호구역과 캐나다내의 외국인대사관직원, 종교단체거주지역, 군부대, 양로원, 감옥, 병원 등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제외하여 캐나다 10개 주 인구의 98%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지출조사는 면접조사(Survey of household spending)와 가계부조사(Food expenditure survey)로 구성되는데, 매년 작성하는 면접조사는 연간

---

12) 가정지출조사는 도시가정지출 형태로 최초 1938년에 시작되었고 1955, 1957, 1962, 1972, 1974, 1976, 1984, 1990 등 부정기적으로 실시되었고, 전국규모로는 1964, 1969, 1978, 1982, 1986, 1992, 1996년에 실시되었다. 표본규모는 도시가정지출은 7,000가구, 전국은 14,000 가구 내외였다. 가구시설조사는 1947년에 시작되어 연간으로 실시되었고 1996년 표본 수는 34,000가구 이었다.



21,000가구를 대상으로 1월~3월 전년의 지출에 관한 조사하고 연말에 전년도 조사자료 공표한다.

<표 19> 「가계동향」 관련 해외통계 현황

	일본	미국	캐나다
통계명	가계조사	Consumer Expenditure Survey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작성기관	총무성	노동부	통계청
주기	월간	연간	연간
시작연도	1946년 도시 가구지출정보 조사에서 1950년 가구소득조사와 통합하여 가계조사 시작	1881년부터 부정기적으로 1979년부터 연간으로 실시	가정지출조사는 1938년 시작하여 1997년 가구시설조사와 통합
목적	가계수지의 수준과 구조를 파악하여 경제사회정책 추진에 활용. 특히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산출 기준으로 사용하고, 가계부문의 경제동향, 개별 상품의 수요 등의 분석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각 품목별 가중치를 추구하고, 미국 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알아내기 위한 것	가구 지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어 정부 및 사회단체 등이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 양육 보조금 결정, 노동자의 임금이나 생활비 결정 등에 활용
표본수	9,000	7,500	21,000

자료: 일본 총무성, 家計調査の概要, 2009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Outline of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007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nsumer Expenditures and Income*, 2007

Statistics Canada,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2008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사항, 재화 및 서비스, 금융사항, 연간 소득, 주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한편 지출면에서는 음식, 거주, 의복, 교통,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 나.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 1) 일본

우리나라의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통계에 해당되는 일본의 통계는 「농업경영통계조사」, 「어업경영통계조사」 및 「임업경영통계조사」의 영업유형별 경영통계의 개별경영 조사 통계에 해당된다.

이는 모두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2001년 농업, 임업, 수산업의 관련법을 정비하여 농업, 임업, 수산업관련 기초통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농업경제조사, 임업경제조사, 어업경제조사를 각각 농업경영조사, 임업경영조사, 어업경영조사로 전환하였고 이때부터 농가, 임가, 어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농업경영조사는 <그림 4>와 같이 농업부문의 광범위한 조사로서 (1) 농업유형별 경영조사, (2) 품목별경영통계, (3) 농산물생산비통계, (4) 축산물생산물통계로 구성된다. 이때 농업유형별경영통계가 개별경영과 조직경영으로 구성되어 농업경영통계가 작성되는데 다시 개별경영은 개인경영과 개별법인경영을 포함하며 작성되며, 조직경영은 조직법인경영, 임의조직경영으로 구분하여 조사된다. 이때, 개별경영에서 개인경영은 바로 우리나라의 농가경제와 유사한 통계조사가 된다.

(a) 농업경영조사



(b) 어업경영조사



(c) 임업경영조사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農業經營統計調査, 각호  
 營農類型別經營統計 (個別經營) の概要, 2009  
 漁業經營統計調査, 각호  
 林業經營統計調査, 각호  
 <그림 4> 일본 농업, 임업, 어업 경영통계 구성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세대원, 노동력, 노동시간, 토지 면적, 재산, 주요 농작물규모 생산량, 농업수익, 경영비용, 농업외 수입 지출, 연금, 세금 등 농가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고, 농업 유형으로는 논, 전작, 야채, 과수 등 13개 분야이다. 조사방법은 현금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일계부를 사용하고 또한 담당원이 면접조사를 병행한다. 농업경영수지 통계는 매 분기별 및 연간으로 작성되는데, 개별 경영농가의 현금수지를 분석하고,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표본수는 농가의 농업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농가중 가장 비중이 큰 논농사 표본이 2338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밭농사가 878가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실, 낙농, 양돈 등 3763 가구로 총 약 7,000가구 이다.

한편, 어업경영조사는 개인경영체조사, 회사경영체조사, 공동경영체조사 등 3종류의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종류의 조사 중 우리나라 어가경제와 유사한 조사는 개인경영체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경영체는 개인으로 어업을 자영하는 경영체(개인경영체)중에서 가족노동에 주로 의존하는 경영체로 조사에서의 대상어업은 주로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선어업을 영위하는 어선어업과 소형정치망어업, 해면양식업(방어류, 참돔, 가리비, 굴, 미역, 김, 진주, 진주모패)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어선어업통계는 3톤미만, 3~5톤, 5~10톤, 10~20톤, 20~30톤, 30~50톤, 50~100톤, 100톤 이상 등 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조사기간은 어선어업은 1월 1일~12월 31일이고, 양식업은 4월 1일~익년 3월 31일이며 연간 통계가 발표된다. 조사 호수는 2007년 기준으로 536호의 개인경영체, 170개의 회사경영체 및 40개의 공동경영체가 사용되었다.

조사항목으로는 ① 세대원 및 어업종사상황에 관한 사항, ② 어선규모 및 사용상황, 양식시설에 관한 사항, ③ 재산에 관한 사항,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⑤ 어업생산물의 어획 및 수확에 관한 사항, ⑥ 노동시간 등 어업조업에 관한 사항 등 6개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한편 가계

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항목을 대략 살펴보면 세대원상황은 세대원수 및 출타가족의 현황과 15세 이상 주직업별 세대원수를 파악하는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조업상황은 사용어선상황, 양식시설면적, 작업상황(출어일수 및 출어횟수), 노동상황으로 최성기의 어업종사자수 및 연 노동인원 등을 조사한다. 수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업수입 지출, 어업외사업수입 지출 등을 조사한다. 한편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조사객체에 소정의 일기장을 배부하여 기장을 의뢰하는 자계신고 및 직원이 경영체 대장에 근거하여 조사객체를 직접 청취하는 면접조사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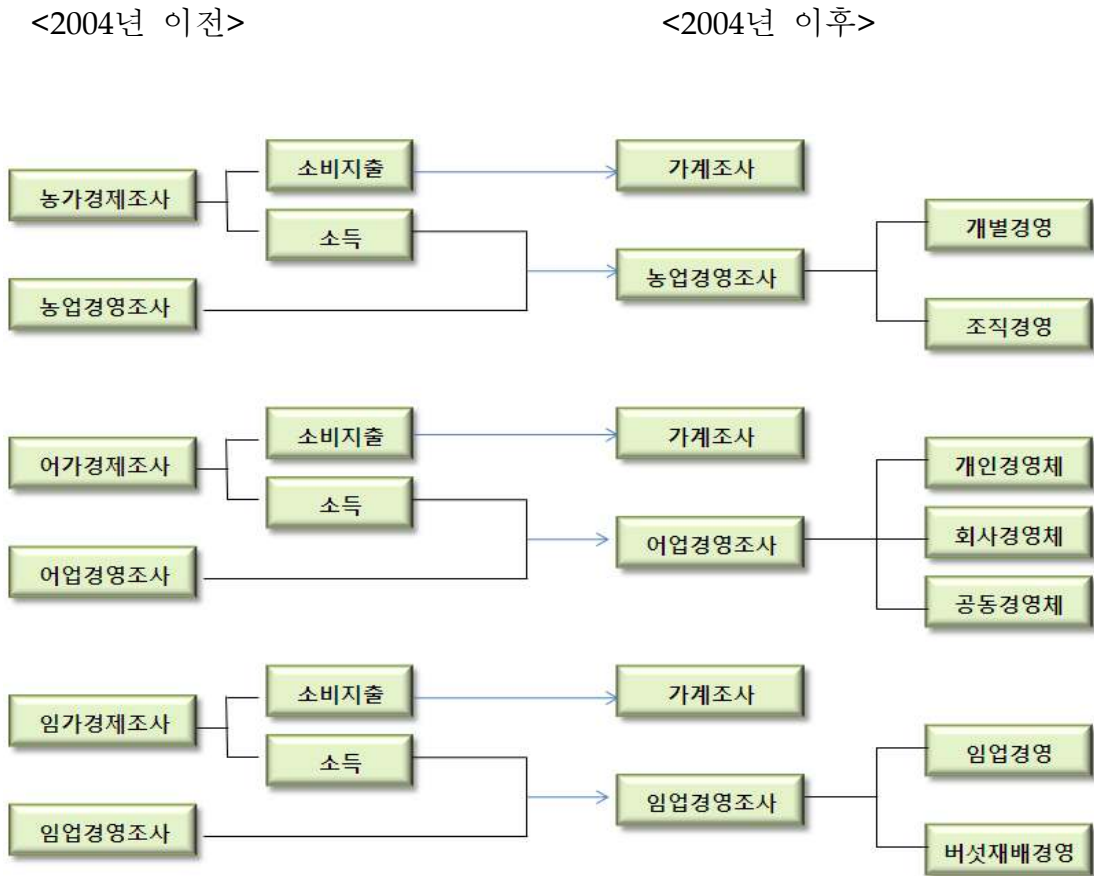
임업경영통계는 산림임업기본법에 따라 임업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임업생산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농림수산성이 작성한다. 임업경영통계 조사 대상 임가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이다. 즉 20~50ha 사이의 산림을 보유하고 1년간 산림사업 노동일수가 30일 이상인 가구,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50만엔 이상인 가구, 3,000그루이상 과실수를 재배하는 가구, 관상수업에 종사하는 가구 등을 포함한다. 조사호수는 2007년 기준으로 450호가 선정되었다.

임업경영통계는 주요 조사 대상에 따라 크게 임업경영통계와 재배경영통계로 구분되는데 임업경영통계는 (1) 노동력 사용시간, (2) 임업용 자산, (3) 임업경영수지, (4) 기타 임업경영사항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임가경제와 유사한 통계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은 <그림 5>와 같이 2004년 이전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의 통계를 구성하고, 지출부문과 소득부문의 통계를 작성하였으나, 이후에는 소비지출에 관련된 항목은 가계조사에서 담당하고, 소득부문 관련 항목

13) 일본의 가족형경영조사의 일기장조사는 우리나라 어가경제조사의 일계부 조사에 해당하고, 경영체 대장조사는 원부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목은 농업경영조사, 어업경영조사 및 임업경영조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農業經營統計調査, 각호  
 營農類型別經營統計 (個別經營) の概要, 2009  
 漁業經營統計調査, 각호  
 林業經營統計調査, 각호

<그림 5> 일본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통계의 구성 변화

## 2) 미국

### (1) 농가경제

미국은 농가소득 통계로 농업자원경영조사(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를 통하여 작성한다. 농업자원경영조사(ARMS)는 미국 농무성이 작성하는 것으로 농업자원의 사용과 비용 그리고, 농가의 금융상황을 파악하기위한 조사로 농업 생산과 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다.

농업자원경영조사(ARMS)는 크게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에 관련된 통계와 농가 샘플을 통한 농가의 소득 및 금융상황 통계로 구성된다. 농업자원경영조사(ARMS)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5월~7월까지 생산량과 가축재고, 판매금액 등의 자료를 조사하고, 2단계는 8월~12월까지 농업생산과 관련된 자료로 특정 농산물의 생산과 비용을 조사한다. 3단계는 1월~4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농가의 소득과 비용 및 금융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때 이 3단계 조사에서는 1단계에서 선발된 표본이 사용된다. 한편 이 3단계 결과로 나온 각종 지표가 바로 우리나라의 농가소득과 같은 통계가 된다.

농업자원경영조사(ARMS)에서 작성된 통계는 농가의 소득 및 금융현황을 평가하고, 농업에 관련된 정책 결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농업관련 단체, 농업관련 기업 및 의회, 주정부 등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한다.

농업자원경영조사(ARMS)에서 제시되는 가장 중요한 통계는 (1) 농가소득과 (2) 생산비 및 (3) 농가의 대차대조표이고, 이는 농가의 금융현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농업자원경영조사(ARMS) 통계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하여 발표되는데 주요 보고서는 (1) 농업비료사용, (2) 농가생산지출(Farm Production Expenditure), (3) The Economic Well-Being of Farm Operator Households, (4) Farmers' Use of Marketing and Production Contracts (5) Contracts, Markets, and Prices: Organizing the Production and Us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6) USDA's Quarterly Agricultural Income and Finance Situation and Outlook report 등의 보고서에 각각 발표된다.

이때 우리나라의 농가경제에 해당되는 통계는 바로 농가생산지출(Farm Production Expenditure)이다. 농가생산지출 통계는 원래 1956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1971년부터는 매년 작성이 되고 있다. 1973년 밀과 보리, 목화, 낙농업품에 대한 생산비용을 작성하게 됨에 따라 일부 품목을 더하여 미국 농무성은 생산비용통계(Cost of Production Program)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농가생산지출(Farm Production Expenditure)와 생산비용통계(Cost of Production Program)가 합하여 1985년 농업비용 및 수익 조사로 통합되었다. 1996년 들어 이들 통계 조사가 모두 농업자원경영조사(ARMS)로 통합되었고, 이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농가생산지출(Farm Production Expenditure)이 작성되었다. 농가생산지출 통계는 현재 미국의 농가 소득과 농가의 물가지수 산정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농가생산지출 통계는 개별 농가의 판매금액에 따라 8등급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구분되어 발표된다.<sup>14)</sup>

2008년 통계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각주에서 총 31,924 농가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미국 농무성이 정의한 농부의 정의에 따라 한해 전에 농산물을 연간 1000달러 이상 판매한 농부로 제한되었다. 미 정부는 농업자원경영조사(ARMS) 통계 작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가선정, 자료수집 및 비용 및 소득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농가 전체 판매에서 농가생산지출을 제외한 농가소득은 비록 ARMS에서 작성되지만, 농가생산지출 보고서에는 없고, 미국 농업성 경제통계서비스(Economic Research Service)에 제시되어 있다. 즉 농가생산지출은 전반적으로 농가의 지출을 중점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판매액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는 따로 농업사업 및 가계조사자료(Farm Business and Household

14) 판매금액 8등급은 \$10,000이하, \$10,000~\$49,999, \$50,000~\$99,999, \$100,000~\$249,999, \$250,000~\$499,999, \$500,000~\$999,999, \$1,000,000 이상 등이고, 지역은 Northeast, Midwest, South, West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Survey Data)로 구분하여 웹사이트에 제시하였고 엑셀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때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즉 소득은 현금소득과 비현금소득으로 구성되고, 비용은 투입물구입금액, 이자, 임금지급, 임대, 감가상각, 재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소득에서 비용을 제한 것이 된다.

<표 20>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에 대한 주요 해외통계

	일본			미국
	농가	어가	임가	농가
통계명	농업경영 통계	어업경영 통계	임업경영 통계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ARMS)
작성기관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농무성
주기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시작연도	1994년	1952년	1952년	1956
목적	농가를 포함한 농업 경영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어업경영체의 재산 및 수지 상황, 조업현황,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정책에 활용	임가를 포함한 임업 경영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농가의 소득 및 금융현황을 평가하고, 농업에 관련된 정책 결정에 사용
관련법	통계법, 농업경영통계조사규칙	수산기본법	산림임업기본법	-
표본수	논농사: 2,388가구 밭농사: 878가구 기타: 3,763가구	개인: 536 회사: 170 공동체: 40	450가구	31,924가구
국내통계에 해당되는 통계	농가경제: 농업 경영통계의 '개별경영'	어가경제: 어업 경영통계의 '개인 경영체'	임가경제: 임업 경영통계의 '임업경영통계'	농가경제: Farm Business and Household Survey.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農業經營統計調査, 각호  
 営農類型別經營統計 (個別經營) の概要, 2009  
 漁業經營統計調査, 각호  
 林業經營統計調査, 각호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arm Production Expenditures 2007 Summary*, August 2008

#### 다. 해외 관련 통계조사의 시사점

이상에서와 같이 주로 일본과 미국 등 통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중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에 해당하는 통계를 조사하였다. 이들 통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대체로 우리나라의 통계 작성, 분류 및 구분은 일본의 것과 유사하였다. 전체 가계를 일반 가계, 농가, 어가 및 임가 등으로 구분하고 월별로 조사하며, 연보 형태로 발표하는 것 모두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및 발전과정이 일본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조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일본과 미국 모두 가계소비지출 혹은 소득조사에서 농가, 임가 및 어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소비지출조사는 농가, 임가 및 어가를 일반 소비자와 함께 포함하여 조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가 농가, 어가 및 임가의 소비와 소득을 제외하고 따로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로 조사하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역시 1999년 이전에는 가계조사에서 농가, 임가 및 어가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후 이를 모두 포함하도록 개편하였다.

셋째, 일본은 우리나라의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에 해당하는 통계를 모두 농가, 어가 및 임가의 소득 및 경영부문에 집중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가, 어가, 임가의 경영부분을 조사하여 소득을 산출하고, 경영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농가, 어가, 임가의 소비지출 형태 분석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5)</sup> 한편 미국 역시 농가의 소비지출은 모두 가계소비지출에 포함하여 발표하지만 농가의 경영 및 소득에

---

15) 실제로 2009년 어가경제 및 농가경제 품질진단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한 표적집단면접(FGI)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어가경제 및 농가경제 통계이 유용성으로 농가 및 어가의 소득 산출과 경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이들 통계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대한 조사를 따로 발표한다. 이는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경제의 비중이나 정치적인 중요성 등으로 정부가 이러한 통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넷째, 일본은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관련 통계를 농림수산성이 모두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발표 내용이나 보도자료 등에서 통계에 대한 일관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이들 통계의 작성 체계조정이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이러한 통일성으로 인하여 1999년 농가, 어가 및 임가의 소비지출 부문을 가계조사에 이양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기존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의 소득 및 경영관련 통계를 모두 각 산업의 기업부문 통계와 함께하여 농업경영통계조사, 어업경영통계조사 및 임업경영통계조사로 이름을 개칭하고 주로 경영부문에만 집중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등 새롭게 개편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및 <그림 5> 참조)

다섯째, 가계조사에서 일본과 미국 역시 표본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발표한다.<sup>16)</sup> 일본은 우리의 도에 해당하는 현 구분으로 매우 자세하게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하기에는 표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을 북동부(Northeast), 중서부(Midwest), 남부(South), 서부(West) 등 4구역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농가나 임가 등의 통계에서도 일본은 지역별로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sup>17)</sup>

---

16)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9,000개의 표본을 사용하고, 미국은 7,000개의 표본을 사용한다.

17) 가계소득관련 통계의 지역별 조사 및 발표에 대해서는 제 5장에서 「핵심주제 분야」 장단기 발전 전략 및 로드맵 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 제 3 장 「가계소득」 분야 품질진단 결과

#### 제 1 절 「가계소득」 개별통계의 진단 결과 종합<sup>18)</sup>

##### 1. 품질관리기반 진단

품질진단에서 품질관리기반 진단은 통계를 생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점검하는 것으로 통계담당부서장의 리더십 및 인적자원관리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품질관리기반 진단은 ① 세부 진단계획을 수립하고, ② 해당 통계 담당자에게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작성을 의뢰한 후, ③ 면담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④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환경을 진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가계소득」 분야 통계의 품질관리기반 조사 결과는 <표 21>에 요약되어 있다. 이때 이 분야 4종의 통계중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의 통계는 대체로 조직관리실태와 통계담당자의 인식부분에 대한 설문결과 해당 점수가 상당히 높게 도출된 반면, 임가경제는 다소 낮은 점수가 도출되었다.

이는 이들 3종의 통계는 통계를 전문으로 작성하는 통계청이 작성하기 때문에 대상통계를 다루고 있는 인적자원이 상당히 우수하고, 통계청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작성직원들이 작성 통계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만 이들 작성직원들은 모두 이들 통계의 향상을 위하여 일부 예산 및 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임가경제는 산림청이 작성하나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통하여 작성하는 관계로 산림청 담당자의 인식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품질에 관한 경영방침의 수립 부문과 전략 전개의 합리성도 부족하고, 특히 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은 별도로 계획,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18) 본 절의 내용은 가계동향, 농가경제 및 어가경제의 2009년 정기품질진단 보고서와 2008년 정기 품질진단의 임가경제 보고서를 요약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 표와 그림은 각 보고서에 제시된 것을 편집 제시한 것이다.

났다. 또한 통계담당자는 대부분 통계전문가가 아닌 가운데 담당하는 통계업무량은 너무 많고, 해당 예산이나 장비, 소프트웨어 확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등 우수한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21> 「가계소득」 품질관리기반 설문지 요약

구분	질문내용	점수(5점)			
		가계	농가	어가	어가
조직관리실태	1. 조직의 리더가 통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전과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5	4	5	5
	2. 조직의 리더는 통계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5	4	5	4
	3. 조직리더가 품질관리 비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방침, 계획, 목표, 세부목표 및 프로세스를 수립 · 시행하고 있습니까?	5	4	5	4
	4. 작성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은 별도로 계획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5	4	5	3
	5. 통계담당 직원의 품질관리 능력이 개발되고,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5	4	4	2
통계담당자의인식	6.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무량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3	5	2
	7. 현재 통계작성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3	5	2
	8. 현재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3	5	3
	9. 지금 맡고 있는 통계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4	5	4
	10. 현재의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4	4	5	4

## 2.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은 해당 통계 관련 전문가 또는 일반 이용자로 구성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s, FGI)과 해당 통계의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로 적절한 수의 이용자를 찾기 어려운 전문적인 통계의 경우, 이용자만족도를 생략하기도 한다.<sup>19)</sup> 즉 가계동향과 임가경제는 일반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었지만, 농가경제 및 어가경제는 이용자 수 부족으로 표적집단면접(FGI)만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과과과과는 가계동향과 임가경제에서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3.60과 3.75과과과과나타나 이들 통계들은 이용자의 욕구를 대체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용자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대체로 일반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통계에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들 통계의 표적집단면접(FGI)에서는 통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대체로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항목수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유사통계와 비교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임가경제에서는 추가적으로 원자료 공개 미비와 조사 항목 및 정의의 변경과 조사의 연속성 미비로 이에 대한 개선의견

---

19) 2009년에 실시된 가계동향, 농가경제 및 어가경제 품질진단에서는 이용자만족도 응답자수가 60명을 넘을 경우, 2회의 표적집단면접(FGI)를 실시하고 60명을 넘지 않을 경우, 3회의 표적집단면접(FGI)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8년에 실시된 임가경제 품질진단에서는 이용자만족도 응답자수가 60명을 넘을 경우, 1회의 표적집단면접(FGI)를 실시하고 20명~60명일 경우 2회의 표적집단면접(FGI)를 실시하며 20명 미만일 경우 3회의 표적집단면접(FGI)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통계품질진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유효표본 60인 이상인 경우 표적집단면접(FGI) 1회 + 이용자만족도조사를 모두 실시하고, 이용자만족도조사 대상이 60인 미만일 때는 표적집단면접(FGI)을 1회 추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8년 임가경제 통계품질진단시 임가경제조사 통계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60명 이상이기 때문에 표적집단면접(FGI)를 1회 실시하였다.

이 제시되었다.

### 3.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은 통계작성 과정이 통계작성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진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주제분야가 고려하는 4종의 통계는 모두 조사통계로서 7개 부분 42개 지표들이 5점 척도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작성절차별 항목과 품질차원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품질진단 결과 거의 대부분 항목에서 5.0만점에 4점 이상을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가경제는 통계작성기획,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등에서 각각 3.9를 받아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원별에서는 일관성이 3.8로 낮게 나왔다.

한편 내부진단점수와 외부진단 점수를 비교한 결과, <표 22>와 같이 4개의 통계모두 외부진단의 점수가 내부진단의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작성자들의 통계에 대한 평가기준에 비하여 외부의 평가기준이 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즉 이는 통계작성자들이 외부평가자의 높은 기대수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

외부진단점수와 내부진단점수의 차이를 개별통계별로 살펴보면, 가계동향은 통계작성기획 항목 및 자료입력 및 처리에서 각각 1.00, 0.88로 가장 높고, 농가경제와 어가경제 역시 모두 자료입력 및 처리에서 각각 0.63과 0.50으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나머지는 0.5점 이하의 차이를 보였다. 임가경제에서는 작성절차별 외부점수의 평균이 내부점수의 평균보다 0.8점 낮게 나타나고, 특히 통계작성기획, 자료 수집,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등에

서 각각 1.3점, 1.3점, 1.1점 1.0점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임가경제에서는 작성자가 생각하는 것과 외부진단자가 생각하는 수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한편 외부의견으로는 종합적인 관리 매뉴얼이 없고, 문서화 및 자료제공 부분에서 국내외 관련되는 타 통계와의 비교 분석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타 조사와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표 22> 「가계소득」의 외부진단점수와 내부진단점수 차이**

		가계동향	농가	어가	임가
작성 절차 차별	통계작성기획	1.00	0.00	0.29	1.30
	조사통계 설계	-0.36	0.07	0.43	0.80
	자료수집	0.59	-0.17	0.17	1.30
	자료입력 및 처리	0.88	0.63	0.50	-0.10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0.00	0.50	0.20	0.20
	문서화 및 자료제공	0.37	0.00	0.05	1.10
	사후관리	0.00	0.25	0.25	1.00
품질 차원	관련성	0.67	0.09	0.09	1.50
	비교성	0.50	0.83	0.67	2.00
	시의성/정시성	0.00	0.00	0.00	1.10
	일관성	-0.50	0.25	-0.25	0.50
	접근성/명확성	0.70	-0.40	0.10	1.00
	정확성	0.34	0.17	0.32	0.50

#### 4.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

조사통계에서 자료수집은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집 자료의 정확성 진단은 현장조사의 정확성 진단과 같아지고, 이는 현장조사에 직접 응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화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진행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100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였다.<sup>20)</sup>

진단결과, 임가경제는 조사 당시와 같은 답변을 얻어 정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동향, 농가경제 및 어가경제는 모두 일계부 작성 가구원 확인 질문에서 모두 80% 내외의 다소 낮은 수준의 응답비중이 나타났다.<sup>21)</sup> 이는 실제 전화로 확인한 응답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우리나라 일반 가계나 농가 및 어가의 특징상 통계조사에 등록된 응답자 보다는 그 “배우자”가 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확성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3> 「가계소득」의 정확성 검증 진단 결과**

질문항목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
1. 일계부 작성여부	100.00%	100%	100.00%	100.00%
2. 일계부 작성 가구원 확인	75.73%	80.58%	80.58%	-
3. 일계부 전달 여부	97.09%	100.00%	100.00%	-
4. 가구주의 직업	82.52%	-	-	-
5. 가구원 수	91.26%	-	-	-
6. 양식어가, 어로어가 확인	-	-	100.00%	-
6-1. 어로어가-어선척수	-	-	89.29%	-
6-2. 양식어가-대표어종	-	-	95.65%	-
7. 일계부 작성 단위(매월)	-	-	-	100.0%

20) 가계동향, 어가경제 및 농가경제의 ‘수집자료의 정확성 점검’을 위하여 (주)아이알씨가 2009년 6월중 전화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시간은 전화상담원의 상태와 실제 응답자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점검대상은 현재 이들 통계에 임하고 있는 표본을 근거로 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랜덤샘플링을 통해 제공받은 200개의 가구이고, 가계동향과 농가경제는 103가구, 어가경제는 107개 가구 등이 응답에 응하였다.

21) 정확성진단에서 전화를 사용하여 지난 번 조사 응답자에 한 질문은 “2. 일계부의 내용을 선생님이 직접 적어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8 임업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가	-	-	-	100.0%
--------------------	---	---	---	--------

## 5. 통계자료서비스의 충실성 진단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진단은 본 주제가 관련되는 공표자료 오류점검과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을 통해 실행한 것이다. 이때 점검 대상은 점검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보도자료, 통계보고서등 통계간행물과 통계DB 등의 자료이다. 즉 근거자료와 비교하여 표기오류 또는 누락 확인, 통계간행물 내용과 통계DB 수치의 일치, 통계표에 수록된 내용확인, 용어의 일치 확인, 단위표기의 정확도와 도표, 그림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거의 모든 통계에서 공표자료의 오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통계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모두 엑셀이나 기타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다. 이들 4종의 통계가 통계청이나 산림청이 발간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대체로 기본사항을 충실히 지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제 2 절 주요 문제점 및 개선과제

### 1. 작성자와 이용자간의 통계 품질 인식

통계는 통계를 작성하는 작성자들의 통계품질에 대한 기대수준과 통계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기대수준이 수렴할 경우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계작성자들은 매우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통계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용자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통계는 효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어 작성된 통계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큰 것은 통계작성자들의 기대수준이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통계의 효용성이 크

게 떨어지는 경우일 것이다.

가계소득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즉 통계작성자와 외부전문가들에게 통계작성기획, 조사통계 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각 통계의 품질을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서, 통계작성자들의 점수가 외부전문가들의 점수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즉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모두 해당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처리한 경우, <표 22>와 같이 외부전문가의 진단 점수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작성자들의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작성자와 이용자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통계작성자들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해당 통계를 작성하고 이에 상당수준 만족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가계동향과 임가경제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가 각각 5점 만점에 3.60점과 3.75점으로 해당질문에 대하여 '보통'보다 높고, '그렇다'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점수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할 때,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는 작성자들이 통계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을 매우 낮게 가졌기 때문에 현재 자신들이 작성하는 통계의 품질에 상당 부분 만족을 하는 경우이고, 둘째, 통계이용자 혹은 전문가들의 통계의 품질에 대하여 너무도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여 작성자들이 현실적으로 이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러나 모든 통계에서 유사하게 외부전문가가 작성자보다 낮게 점수를 표시하고, 전문가 집단이 아닌 통계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보통에 해당하는 3점보다 소폭 높은 점수에 그쳐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들 두 가지 분석 결과에서 모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작성자와 전문가 및 이용자들 간의 상호 교류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작성자들은 이 통계의 이점과 문제점, 개선할 사항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움 등을 이용자나 전문가들에게 제시하여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통계 이용자와 전문가들은 해당 통계의 개선시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통계품질을 진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 작성자들은 이용자 및 통계전문가와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해당 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2. 각 통계의 통계주제별 구분

현재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 등 관련 통계에 대한 각종 설명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웹사이트에 대체로 잘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통계들의 구분은 <표 24>와 같이 여러 웹사이트에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즉 통계청에서 이들 통계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은 (1)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구분, (2) 통계청의 통계설명자료, (3) 국가통계포탈, (4) 통계청의 통계간행물 소개 등에 나오는데 이들의 주제별 구분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구분을 살펴본 결과 <그림 6>과 같이 어가경제, 농가경제 및 임가경제는 모두 '통계부문'에서 '가계소득(소비)' 분야에 포함되어 분류되어 있다.<sup>22)</sup>

그러나 개별 통계의 정의, 의미, 작성방법 등을 기록된 통계청의 통계설명자료 웹사이트(<http://meta.kosis.kr/bzmt/>)에는 이와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 즉 <그림 7>와 같이 통계설명자료(<http://meta.kosis.kr/bzmt/>)에서 '주

22) 가계소득(소비) 분야의 주요 통계로는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자산조사, 임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재정패널, 가전기기보급률및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가계신용조사 등이 있다.

제별메타자료'를 찾아보면, 가계동향와 임가경제는 물가·가계 구분에 속해있는 반면, 농가경제 및 어가경제는 모두 농림어업 구분에 포함되어 있다.<sup>23)</sup>

또한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에서 실제 통계값을 찾으려할 때 역시 국가통계의 구분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 <그림 8> 및 <그림 9>와 같이 주제별 통계값을 찾을 때, 가계동향조사 통계는 물가·가계에 있으나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통계는 모두 농림어업에 구분되어 있다. 더욱이 임가경제는 구분상 임가경제 이름으로 표시되어있지 않고, 임업경영실태조사 내에 임가경제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통계에 대한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임업경영실태조사에 임가경제 주요지표에 포함된 통계는 2006년 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2007년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홈페이지의 통계간행물 소개에서 『농가경제조사보고서』 및 『어가경제조사보고서』의 위치 역시 <그림 10>와 같이 국가통계현황과 다르게 되어 있다. 통계간행물 소개 웹사이트에 보면, 물가·가계 구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월보』와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가계동향조사 연보』, 『가계자산조사연보』, 『사교육비조사 보고서』 등의 5종의 간행물이 있고, 농림어업 구분에 가면 『농업총조사보고서』, 『어업총조사보고서』, 『농업조사보고서』, 『어업조사보고서』, 『농가경제통계』, 『어가경제통계』, 『농산물생산비통계』, 『양곡소비량 조사보고서』, 『농어업법인조사 보고서』, 『임업총조사보고서』, 『농산물생산통계』, 『주요작물생산동향』, 『경지면적통계』, 『가축동향』, 『축산물생산비통계』, 『어업통계』, 『어류양식현황조사』, 『푸른들, 숲, 바다 그리고 삶』 등 18종의 간행물이 포함되어 있다. 즉 『농가경제조사 보고서』 및 『어가경제보고서』가 원래

---

23) 물가·가계에 포함되는 통계로는 가계동향조사, 가계자산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가전기기보급률 및가정용전력, 임가경제조사, 재정패널 등의 가계소득관련 통계와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국지가변동률조사 등 물가관련 통계로 구성된다.

통계분류인 물가·가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림어업에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 조사에 대한 통계청 웹사이트내의 주제별 구분에서 그 구분이 다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4> 「가계소득」 통계의 주제별 구분

	국가통계포탈	통계설명자료 주제 구분	승인통계소재 정보안내의 통계분야	통계청 통계간행물 소개
가계동향	물가·가계	물가·가계	물가·가계	물가·가계
농가경제	농림어업	농림어업	물가·가계	농림어업
어가경제	농림어업	농림어업	물가·가계	농림어업
임가경제	농림어업	물가·가계	물가·가계	없음

주: 해당 웹사이트의 해당된 주제구분을 제시하였음

자료: 통계청 통계간행물 소개 및 승인통계정보안내, <http://www.nso.go.kr/>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통계설명자료, <http://meta.kosis.kr/bzmt/>

· 2009.07.31 현재 · 조사수 : 884종 · 작성기관수 : 362개 기관

» 가계소비(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자산조사, 임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재정패널, 가전기기보급률및가정용전력소비형태조사, 가계신용조사

» 농림

농림어업출조사, 농업조사, 합천군농업조사, 거창군농업조사, 함양군농업조사, 산청군농업조사, 하동군농업조사, 남해군마늘농업실태조사, 남해군농업조사, 경상남도고성군농업조사, 창녕군농업조사, 합안군농업조사, 의령군농업조사, 관상수시업상황조사, 임산물생산통계, 목재수급통계, 산림기본통계, 식품산업분야별현황조사,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채소류가공현황조사보고, 화훼류재배현황보고, 농림업생산지수, 농산물소득조사, 목재이용실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산물통계, 임업경영실태조사, 국가산림자원조사, 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상황, 도축검사보고, 배합사료생산실적및원료사용실적보고, 버섯생산통계, 시설채소온실현황및생산실적, 과실류가공현황조사보고, 누에사육및양잠규모조사보고, 농기계(보유)상황보고, 울진군농업조사, 청송군농업조사, 김천시농업조사, 나주시축산농가실태조사, 김제시농업조사, 옥천군주요농특산물및특구작물실태조사, 보은군주요소득작물및한우실태조사, 여주군 농업환경조사, 축산물등급판정통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조사, 농어업법인조사, 가축동향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경지면적조사, 농작물생산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자료: 국가통계현황, [www.nso.go.kr](http://www.nso.go.kr)

<그림 6> 국가통계현황표상 가계소득 및 농림업 통계

(a) 물가·가계

주제별메타자료	기관별메타자료	조사표조회
인구·가구 보건·사회·복지 광공업·에너지 도소매·서비스 재정·금융 사법·행정	고용·노동·임금 환경 건설·주택·토지 경기·기업경영(사업체) 무역·외환·국제수지 기타	물가·가계 농림어업 교통·정보통신 국민계정·지역계정·국부 교육·문화·과학
<b>☐ 물가·가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계동향조사</li> <li>·가전기기보급률및가정용전력...</li> <li>·소비자물가조사</li> <li>·재정패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계자산조사</li> <li>·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li> <li>·수출입물가조사</li> <li>·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소비실태조사</li> <li>·생산자물가조사</li> <li>·임가경제조사</li> <li>·전국지가변동률조사</li> </ul>

(b) 농림어업

☐ 농림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동향조사</li> <li>·과수실태조사</li> <li>·국가산림자원조사</li> <li>·나주시축산농가실태조사</li> <li>·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남도고성군농업조사</li> <li>·과실류가공현황조사보고</li> <li>·김제시농업조사</li> <li>·남해군농업조사</li> <li>·농기계(보유)상황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지면적조사</li> <li>·관상수시업상황조사</li> <li>·김천시농업조사</li> <li>·농가경제조사</li> <li>·농림어업총조사</li> </ul>

☐ 농림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묘사업실태보고</li> <li>·어업경영조사</li> <li>·어업총조사</li> <li>·영어자금소요액조사</li> <li>·울진군어업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가경제조사</li> <li>·어업생산동향조사</li> <li>·여성농업인실태조사</li> <li>·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상황</li> <li>·인공어초시설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류양식동향조사</li> <li>·어업조사</li> <li>·여주군 농업환경조사</li> <li>·울진군농업조사</li> <li>·임산물생산비조사</li> </ul>

자료: <http://meta.kosis.kr/bzmt/>

<그림 7> 통계설명자료 주제별 메타자료 구분

**조회결과**

- 농림어업**
  - 농업**
    - 농업총조사
    - 과실류가공현황조사보고
    - 목재수급통계
    - 산림기본통계
    - 임산물생산통계
    - 임업경영실태조사
  - 어업**
    - 어업총조사
    - 어업조사
    - 어가경제조사
    - 어업생산동향조사
    - 어류양식동향조사
      - 체소류가공현황조사보고
      -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축산물생산비조사
      - 경지면적조사
      - 농작물생산조사
      - 농지임대차조사
  - 임업**
    - 임업총조사
    - 과실류가공현황조사보고
    - 목재수급통계
    - 산림기본통계
    - 임산물생산통계
    - 임업경영실태조사
  - 어업**
    - 어업총조사
    - 어업조사
    - 어가경제조사
    - 어업생산동향조사
    - 어류양식동향조사



<http://www.kosis.kr/>

<그림 8> 국가경제포탈상 농림어업 통계 자료 화면



(a) 어가경제



(b) 임가경제



<http://www.kosis.kr/>

<그림 9> 국가통계포탈의 통계설명자료 찾기

## (a) 가계동향

HOME > 알림마당 > 발간자료 > 통계간행물소개 > 물가·가계 > 가계동향조사연보

통계간행물소개

전체목록  
 종합  
 인구·가구·주택  
 고용  
 물가·가계  
 사회  
 경제·산업동향

서비스업동향  
 사업체·기업활동  
 농림어업  
 지역계정·국가자산통계  
 국제비교  
 표준분류·기타

물가가계

가계동향조사연보

가계동향조사연보



- 최초발간연도 : 1963년 9월
- 최근발간연도 : 2008년
- 발간주기 : 연간
- 발간시기 : 6월
- 규격 : 4 × 8배판
- 면수 : 394면
- 발간부서 :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

TOP

## (b) 농가경제

농림어업

농가경제통계

농가경제통계



- 최초발간연도 : 1962년
- 최근발간연도 : 2009년
- 발간주기 : 연간
- 발간시기 : 매년 5월경
- 규격 : 4 × 8배판
- 면수 : 238면
- 발간부서 : 사회통계국 농어촌통계과
- \* 1997년 보고서까지는 농림부에서 발간

TOP

## (c) 어가경제

농림어업

어가경제통계

어가경제통계



- 최초발간연도 : 1978년
- 최근발간연도 : 2009년
- 발간매체 : 디지털간행물(e-book)  
\* 2008년 발간보고서까지는 책자로 발간
- 발간주기 : 연간
- 발간시기 : 매년 5월경
- 면수 : 160면
- 발간부서 : 사회통계국 농어촌통계과
- \* 1995년 보고서까지는 농림부
- \* 1996~1997년 보고서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발간

TOP

자료: [www.nso.go.kr](http://www.nso.go.kr)

<그림 10> 통계청 홈페이지의 「가계동향」 관련 발간물 통계 현황

### 3. 통계설명자료 접근성 개선

통계에 관련된 설명 혹은 메타자료는 통계를 찾는 과정에서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매우 자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설명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를 찾기 어렵고, 작성자들은 수정하고 싶을 때 이를 쉽게 수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타자료는 통계설명자료 웹사이트의 설명이다. 이는 국가통계포탈과 연관되어 국가통계포탈에서 개별 통계를 찾을 때 쉽게 이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어가경제 자료를 찾을 경우, 오른쪽 우측 상단에 붉은 색으로 통계설명자료 아이콘이 있어 이곳을 클릭하면 이 통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어가경제 및 가계동향도 같은 방법으로 통계값을 찾는 과정에서 통계에 대한 각종 설명도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국가통계포탈의 임가경제의 경우 이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화면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통계설명자료 웹사이트 내에서 임가경제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웹사이트 내에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한편 개별통계에 대한 설명은 통계청 웹사이트의 국가승인통계현황 구분의 소재정보안내에 간략하게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1>과 같이 가계동향의 경우 최초실시연도나 작성기관, 조사주기, 조사목적 및 작성체계 등 매우 간편하게 그 설명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너무도 간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얻으려면, 다시 국가통계포탈의 통계설명자료를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국가 승인통계 항에서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이 통계에 대한 정보를 더 획득하려하면 자동적으로 통계설명자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만들거나 따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실제로 이렇게 2개의 웹사이트에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승인통계 소재정보안내	
승인번호	10106
통계명칭	가계동향조사
최초실시연도	1963년
작성기관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
전화번호	042-481-2278
통계분야	가계소비(소득)
통계종류	지정통계 - 조사통계
조사범위	전국
조사단위	가구
조사방법	확률표본-배포(유치)
조사주기	월
작성체계	표본가구→조사원→지방 통계사무소(품목코드부여, 온라인입력)→통계청
조사목적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 국민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 모집단 자료 등 각종 경제, 사회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산정 및 국민주택 공급대상의 기준설정 자료
조사내용	- 가구실태 : 가구구분, 가구원수, 취업인원수, 가구주와 배우자에 관한사항(기타 가구원에 관한 사항 포함), 가구유형, 세대구분, 주거에 관한 사항, 거처구분, 사용면적, 자동차보유 등 - 가계수지 : 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사항(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 의류신발, 보건의류,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등 10대 비목별 소비지출)

자료: [www.nso.go.kr](http://www.nso.go.kr)

<그림 11>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승인통계 소개

#### 4. 수집자료의 정확성 개선

우리나라 농가 및 어가의 특성상 가구원중 정확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지 않다. 즉 2005년에 실시된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농가인

구중 19세 이하와 5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1.3%이고,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53.7%로 나타났다.<sup>24)</sup> 따라서 이들이 매일 같이 가계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조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일계부를 검사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기입이 누락된 부분들은 수정해야 한다. 또 현장에서 조사원들이 임가와 수시로 접촉하고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일계부에 적힌 사항과 실제사항이 일치하는지를 늘 체크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개별 통계들의 품질진단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정확성 진단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년 후 같은 항목에 대하여 질문한 경우, 일부 질문에 대하여 정확성이 80% 내외에 그쳐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08년 임가경제 품질진단 조사시 현장 감리 결과를 보면 위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상당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표적집단면접(FGI)나 내외부 진단위원의 진단 결과, 무응답처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조사원에 대한 교육과 책임감 부여 및 조사원들에 대한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성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 조사를 작성할 경우, 이들 조사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4) 2005년 실시된 농림어업 총조사에 농가 구성원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50세 기준			60세 기준		
연령	인구	비율(%)	연령	인구	비율(%)
19세 이하	492,877	14.4	19세 이하	492,877	14.4
20~49세	988,780	28.8	20~59세	1,589,643	46.3
50세 이상	1,951,916	56.8	60세 이상	1,351,053	39.3
총계	3,433,573	100.0	총계	3,433,573	100.0

## 5. 비교성 개선

### 1) 가구의 기준 선정

가계소득(소비) 주제 분야의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는 우리나라 가계의 경제생활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로 대체로 가구주의 주요 소득원 혹은 직업에 따른 분류이다.

그러나 실제로 각 가구주의 소득원이나 직업에 따른 구분을 살펴볼 경우,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들의 구분은 제 1 장의 <표 2>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같은 가구라도 가계동향, 농가, 어가 및 임가에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즉 농가, 어가 및 임가에 해당하는 조건이 매우 느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 약 500평의 농업을 하고, 동시에 유실수를 일정규모 이상 재배할 경우, 이들은 농가에도 속할 수 있고, 또한 임가에도 속할 수 있게 된다.<sup>25)</sup>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로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표 25>는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에서 농가소득과 어가소득 및 임가소득을 소득원천별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농가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소득으로 30,523천원을 기록하였다. 이때 농업으로 얻은 소득이 9,654천원으로 전체 소득의 31.6%에 불과하다. 반면 농업외소득은 11,353천원으로 37.2%를 기록하였고, 이어 이전소득이 5,289천원으로 17.3%를, 비경상소득이 4,227천원으로 13.8%를 기록하였다. 특히 농업소득의 비율은 2005년 38.7%에서 2008년에는 31.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편 어가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소득으로 31,176천원을 기록하였다. 이때 어업으로 얻은 소득이 13,801원으로 전체 소득의 44.3%를 기록하였고,

---

25) 일정규모에서 밭은 1,700평, 대추는 300평, 호도는 800평, 잣은 7,000평이상의 경우 임가에 해당된다.

어업외소득은 10,120천원으로 32.5%를 기록하였고, 이어 이전소득이 2,423천원으로 7.8%를, 비경상소득이 4,831천원으로 15.5%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가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소득으로 27,288천원을 기록하였다. 이때 임업으로 얻은 소득이 8,203천원으로 전체 소득의 30.1%를 기록하였고, 임업외소득은 11,787천원으로 43.2%를 기록하였고, 이어 이전소득이 4,447천원으로 16.3%를, 비경상소득이 2,852천원으로 10.5%를 기록하였다.

즉 농가나 임가의 경우, 농업 및 임업으로 취득하는 소득의 비율이 전체 소득의 30% 수준에 어가의 경우도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과연 농업이나 어업 및 임업으로 얻는 소득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경우, 이들을 과연 농가나 임가 혹은 어가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가해질 수 있다.

### <표 25> 농가, 어가 및 임가 소득의 원천별 구분

#### (a) 농가

(단위: 천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농가소득	30,503	(100.0)	32,303	31,967	30,523	(100.0)
농업소득	11,815	(38.7)	12,092	10,406	9,654	(31.6)
농업총수입	26,496	-	27,322	26,102	25,843	-
농업경영비	14,681	-	15,231	15,696	16,189	-
농업외소득	9,884	(32.4)	10,037	11,097	11,353	(37.2)
근로소득	6,360	(20.9)	6,273	6,886	7,275	(23.8)
이전소득	4,078	(13.4)	4,886	4,959	5,289	(17.3)
비경상소득	4,725	(15.5)	5,289	5,506	4,227	(13.8)

(b) 어가

(단위: 천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어 가 소 득	28,028	(100.0)	30,006	30,668	31,176	(100.0)
어업소득	11,950	(42.6)	11,603	11,975	13,801	(44.3)
어업총수입	26,576	-	25,910	26,535	33,457	-
어업경영비	14,626	-	14,307	14,560	19,656	-
어업외소득	9,399	(33.5)	10,361	10,981	10,120	(32.5)
이전소득	2,245	(8.0)	2,728	2,913	2,423	(7.8)
비경상소득	4,434	(15.8)	5,315	4,799	4,831	(15.5)

(c) 임가

(단위: 천원, %)

	2005		2006	2007	200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임 가 소 득	27,148	(100.0)	27,846	28,501	27,288	(100.0)
경상소득	23,044	(84.9)	24,531	25,328	24,436	(89.5)
임업소득	6,529	(24.0)	7,470	8,992	8,203	(30.1)
임업외소득	14,924	(55.0)	13,100	12,318	11,787	(43.2)
이전소득	1,591	(5.9)	3,961	4,017	4,447	(16.3)
비경상소득	4,104	(15.1)	3,315	3,172	2,852	(10.5)

주: 임가경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모집단과 표본 설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구성비를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다만 이들 통계에 기초할 때, 임업소득비율이 대체로 24.0%~31.5%로 나타나, 임업소득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 산림청, 『2007 임가경제통계』, 2008  
통계청, 「2008 농가어가경제조사 보도자료」, 2009

2) 가계동향, 농가, 어가, 임가경제 가구간의 통계 비교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는 제2장 「가계소득」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원천별로 우리나라 각 가구를 구분하여 이들의 소득과 지출행태를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상호 비교할 경우, 각 집단별 가구의 많은 특성을 알게 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농가경제는 농가의 생산활동에 따른 소득과 소비활동에 따른 지출을 반영하는 통계이다. 즉 전자의 경우, 농가의 생산활동이 지난 수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와 개별농가의 소득과 다른 업종의 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활용도가 되겠고 후자의 경우, 농가의 소비지출이 도시가구나 어가 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활용도라 할 수 있다. 어가경제나 임가경제 역시 각각 동일한 차원에서 그 활용도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의문은 과연 이렇게 선택한 표본이 과연 농가, 어가 및 임가를 대표하는 가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가나 어가, 임가는 모두 농업이나 어가, 임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대체로 40% 수준이거나 그 이하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농가, 어가, 임가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농업소득이 전체소득의 30%, 어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35% 그리고 기타 소득 35%인 가구는 농가에 포함될 수도 있고, 어가에 포함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지를 10a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을 50만원 판매하면서, 가구원중 1명이 “1개월 이상 어업활동”을 한 경우, 이는 농가나 어가의 정의에 포함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가구가 과연 농가인가 어가인가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통계작성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임가, 어가, 농가, 도시가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통계작성 시스템하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일부 어렵게 되어 있다. 먼저 농가, 어가 및 임가는 경영과 가계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경영단위인 동시에 가계단위로서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통계는 모두 경영부문과 지출

부문을 동시에 반영하여야 적절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 때문에 경영부문이나 지출부문이나 모두 이들 각각을 특화한 조사에 비하여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농가경제의 조사 지출항목은 가계동향에 비하여 세세항목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이를 비교하기 어렵다. 한편 소득측면에서도 제조업의 기업경영 관련 자료와 상호비교하기 어렵다.

셋째, 가계동향이나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는 모두 그 조사여건이 서로 다르다. 먼저 가계동향과 농가, 어가경제는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자, 조사원, 지방통계청 사무소를 거쳐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작성한다. 그러나 임가경제는 산림청이 통계작성을 총괄하고 외부용역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그 조사여건이 서로 같다고 할 수가 없다. 이밖에 가계동향은 대체로 도시민의 소비 및 소득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된 농가 및 어가에서 조사대상자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조사항목을 같게 하고 세세한 조사를 하려고 하여도 그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농가경제 및 어가경제는 경영활동과 지출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문제점은 소비지출의 품목별 비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계동향은 10대분류 이외에 보다 자세한 지출을 품목별로 발표하나, 농가와 어가 및 임가는 10대 분류에 기초한 통계만을 발표할 뿐, 이하의 세분류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어렵게 된다.<sup>26)</sup>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농가, 어가 및 임가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면서 단기간에 상호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다른

---

26) 2009년부터 가계동향은 소비품목분류를 기존의 10대 분류(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가가사용품,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에서 12대 분류(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32)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경제 및 어가경제 역시 2009년부터 12대 분류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관이나 부서가 이러한 통계를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해결방안을 찾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나 이 통계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각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단기간에 상호<sup>27)</sup>

마지막으로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등의 통계는 우리나라 각 가계의 소득과 지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만약 이들 통계를 다른 나라의 유사 통계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득수준이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및 소득구성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 각 국가의 유사통계를 조사하고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각국 소비지출 및 소득통계의 정의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는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정의를 비교하고 이를 통계 보고서에 기록하고, 각 국의 통계를 제시하여 상호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가구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와 거의 유사한 정의에 기초하여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 등에 해당하는 통계를 각각 작성하기 때문에 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2장 제2절 해외통계의 설명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를 활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3) 조사의 연속성

통계의 중요성은 시계열상의 누적된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즉 매년 어떤 사항이 필요해서 조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추가, 제외하지 말고 동일한 조사항목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가경제의 경우 찾은 조사 항목 및 정의의 변경이 문제가 되고 있

---

27) 이에 대해서는 제4장 1절 유사중복폐지 통계중에서 1. 통계 작성 기관간 협력 제고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다. 모집단에 대한 정의는 최근 3년간 계속 변경되었고, 또 표본설계도 2007년 임가경제보고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최근 3년간 계속 바뀌었고, 조사항목의 정의나 임가의 전업과 겸업에 대한 정의 등 매우 기초적인 항목의 정의가 자주 바뀐다.<sup>28)</sup> 이런 변화는 자료의 연속성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임가경제자료는 시계열 자료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계속해서 표본 설계가 변하게 되면 시계열자료의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임업관련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하여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의를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한다.<sup>29)</sup>

28) 최근 3년간 임가경제 표본설계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모집단	1999년 임업총조사 결과 조사된 66,300임가	1999년 임업총조사와 2005년 임업총조사 잠정집계결과 반영	2005년 임업총조사 결과 조사된 97,108임가
표집틀 (Sampling Frame)	1999년 임업총조사	1999년, 2005년 임업총조사	2005년 임업총조사 결과 97,108개 임가 중 93,276개 임가
표본할당	업종×지역별 비례배분	업종×지역별 비례배분	업종별 50개 우선 할당 후 지역×규모별 비례배분
표본추출	지역내에서 해당업종의 임가수가 많은 시군 순으로 정렬한 후에 계통추출법 적용	지역내에서 해당업종의 임가수가 많은 시군 순으로 정렬한 후에 계통추출법 적용	층화 2단 추출법
추정방법	업종×지역별 가중치 적용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 적용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 적용

29) 2005년 전·겸업 임가 구분에서 전업임가는: 5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업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가, 임업주업은 겸업임가 중 임업소득이 기타 가계소득보다 많거나 같은 임가, 임업부업은: 겸업임가 중 임업소득이 기타 가계소득보다 적은 임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전·겸업 임가 구분에서는 전업임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임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가구이고, 임업주업은 겸업임가 중 임업소득이 기타 가계소득보다 많거나 같은 임가이고, 임업부업은 겸업임가 중 임업소득이 기타 가계소득보다 적은 임가를 의미한다.

## 제 4 장 「가계소득」 장·단기 발전전략 및 로드맵

### 제 1 절 「가계소득」 통계의 품질 개선

#### 1. 가계소득 통계 작성 기관간 협력 제고

##### 가. 작성기관간 협력 제고의 필요성

현재 가계소득 분야의 통계는 <표 1>과 같이 가계동향조사, 가계신용조사, 가계자산조사, 가전기기보급률 및 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임가경제조사 및 재정패널 등 8종의 통계이고 이중 가계의 소득이나 지출에 관련이 깊은 통계는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임가경제 등 4종의 통계이다. 이들은 가구당 경제생활을 나타내는 조사통계로서 각각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농가, 어가, 임가의 경제활동의 특징을 보여준다. 즉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는 가계의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소득과 소비 지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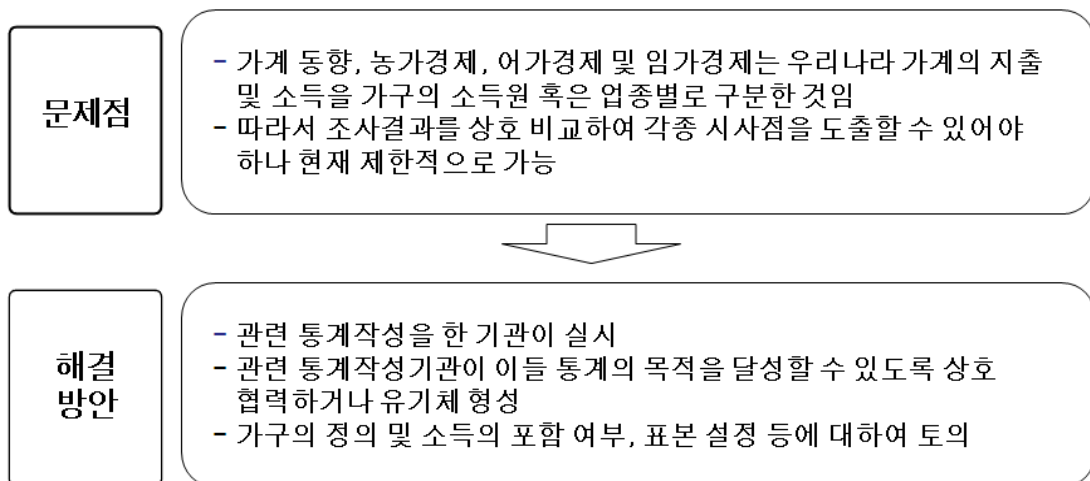
이들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은 각각 일반 가계와 어가, 농가 및 임가의 경제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각종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조사결과를 사용하여 상호 비교를 할 경우 그 의미 및 정책적인 활용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즉 농가의 소득이나 지출을 어가 및 임가나 기타 가계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농가 및 어가에 관련된 정책 도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전반적인 가계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가 모두가 200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의 모집단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유사

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 통계를 모두 활용하는 비교분석은 손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들 통계가 상호 비교 가능하려면 각 가구의 정의나 조사방법 및 표본 추출 방법 등이 상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sup>30)</sup>

특히 어가와 임가 및 농가의 겸업이 매우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통계조사시 이러한 전업과 겸업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이루어져야하고, 통합소득을 사용하여 비교하고 또한 개별 활동에 대한 소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원천별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이들 가구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 가구는 일반 가계, 농가나 어가 등 여러 곳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기본적인 농가나 어가 및 임가의 정의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sup>31)</sup>



**<그림 12> 통계작성 기관별 협력 제고**

30) 각각 통계의 모집단 및 표본통계의 차이점은 제2장의 <표 4> 가계소득 주제 분야 통계의 모집단과 조사 표본 항목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3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78쪽 제3장 제2절 주요문제점 및 개선과제중 5. 비교성개선에 제시되어 있다.

## 나. 해결 방안

### 1) 장기적 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 어가, 농가, 임가경제 조사를 하나의 기관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일 것이다. 즉 이를 총괄하는 하나의 기관이 각종 통계를 작성할 경우 상호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4개의 통계중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는 통계청이 작성하고, 임가경제는 산림청이 작성하고 있다. 때문에 가계동향, 농가경제와 어가경제의 경우에는 상호간의 연관성이 이해되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으나 임가경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임가경제는 산림청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통계를 작성하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극명하다. 일본은 제2장 2절 관련 해외 통계 작성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수산성이 우리의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와 거의 유사한 통계를 모두 작성하여 상호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32)</sup>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기관이 이들 통계를 모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2) 단기적 방안

그러나 단기간에 위에서 제기한 작업을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별 기관이 수년 동안 해당 통계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통계작성의 노하우

---

32) 우리가의 농가경제는 일본에서 농업경영조사에서 개별경영에 해당하고, 어가경제는 어업경영조사의 개인경영체에 해당하며, 임가경제는 임업경영조사의 임업경영과 유사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2절을 참조하시오.

도 쌓여 있고, 관련 인력이 모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이동시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장 단기적으로는 작성기관간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은 현재 산림청이 작성하는 임가경제 작성에 통계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산림청이 외부 용역을 통하여 해결하던 것을 통계청에 통계작성을 의뢰하고 산림청의 외주용역을 받던 외부조사기관이 통계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임가경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산림청이 현재 외부조사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계작성 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가계소득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간에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는 반드시 이들 기관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호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장이 됨과 동시에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반드시 오프라인의 모임이기보다는 온라인의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년 1회나 2회 정도 정기적인 워킹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2. 유사 관련 통계와의 관계 강화

### 가. 유사 통계 현황 및 활용 가능성

현재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와 가장 관련된 통계로는 각각 농산물소득조사, 어업경영 및 임업경영 통계 등이 있다.

농산물소득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농장경영진단 및 설계 등 경영개선 지도와 농업경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매년 조사하는 통계이다. 이는 식량작물, 노지채소, 시설채소, 노지과수, 시설과수, 특용작물 등 43개 작목의 재배면적, 조수입, 생산비, 작업단계별 투입노동력, 고용 및



자가노임, 토지자본용역비, 감가상각비 및 고정자본용역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sup>33)</sup> 특히 이는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농가경제와 크게 차이를 갖는다.

어업경영조사는 주요어업기업의 경영실태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어업 경영지표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때 어업경영조사는 어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통계로서 개인기업인 어가를 조사하는 어가경제와 차이점을 갖는다.<sup>34)</sup> 한편 임업경영실태조사는 매년 특정 조사업종을 선택하고, 그 조사업종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가구를 선발하여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로 각 가구(경영체)의 임업소득, 노동력투입, 기계화 수준, 경영비용, 경영의사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sup>35)</sup>

33) 농산물소득조사는 농촌진흥청 경영관실에서 전국 도 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시군구의 행정업무체계를 통해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생산하는 통계이다. 농산물소득조사는 통계청으로부터 2002년에 일반조사통계로 승인되어(승인번호 : 제14302호) 작성되고 있다. 농산물소득조사 통계는 농촌진흥청 주관 각종 농장의 경영설계 및 진단, 경영개선 및 생산투입 및 산출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기초자료이다. 농산물소득조사 통계는 1977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연도 9월경에 공표되고 있다. 농산물소득조사 통계의 조사체계는 농촌진흥청 경영담당관실의 실무자가 조사 및 보고요령을 교육하고 조사지침을 하달한 후에 시군 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농촌진흥청의 보고체계를 거쳐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집계되고 있으며, 현장조사는 시군 기술센터의 전문지도사가 해당 농가를 수차례 방문하여 면접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34) 어업경영조사의 목적은 첫째, 주요어업의 경영실태를 계량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각종 어업 경영지표를 산정한다. 셋째, 어업경영 합리화와 수산정책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작성된다. 어업경영조사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원에서 기획하고,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에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통계로서 근해어업 14개 어업 및 정치망어업 2개 시설을 가진 전체 어업경영체 4,489개 중 249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2006년 현재 어업경영조사의 표본사업체 수는 249개로 여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허가어업인 221개 어업경영체, 정치망어업인 28개 어업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해당 표본조합의 상근조사원이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하는 방식과 면세유 사용, 조합 계통 출하액 등 해당 조합에서 직접 전산자료를 확인하는 방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어업경영조사에서는 어선년 현재 조업활동, 자산 및 부채상황, 수지상황, 생산성 지표 직접 발표되고 있다.(통계청, 어업경영조사 품질진단보고서 2006)

35) 임업경영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산림정책의 대상이 되는 임업경영자 및 목재관련 공장 경영자를 대상으로 재배경력, 산림보유기간, 소유면적, 소유동기 조림수종(재배수종) 등 일반사항과 수입, 비용, 유통관련 사항 및 향후 경영의사 등을 조사하는 산림정책의 기초자료이다. 이 조사는 업종별로 순환조사하기 때문에 대개 5년마다 일순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대상연도 1.1부터 12.31일까지이고 조사 시기는 다음해 6.16부터 6.25까지 약 일주일간에 이루어진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조사보고서로 공표되어 배포되고 산림청 홈페이지의 임업통계에 파일로 공표된다. 2005년도 조사결과는 이 전에 동일한 업종을 조사하였던 2000년도의 조사자료와 시계열로 공표하고 있어 연구나 행정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통계청, 임업경영실태조사 품질진단보고서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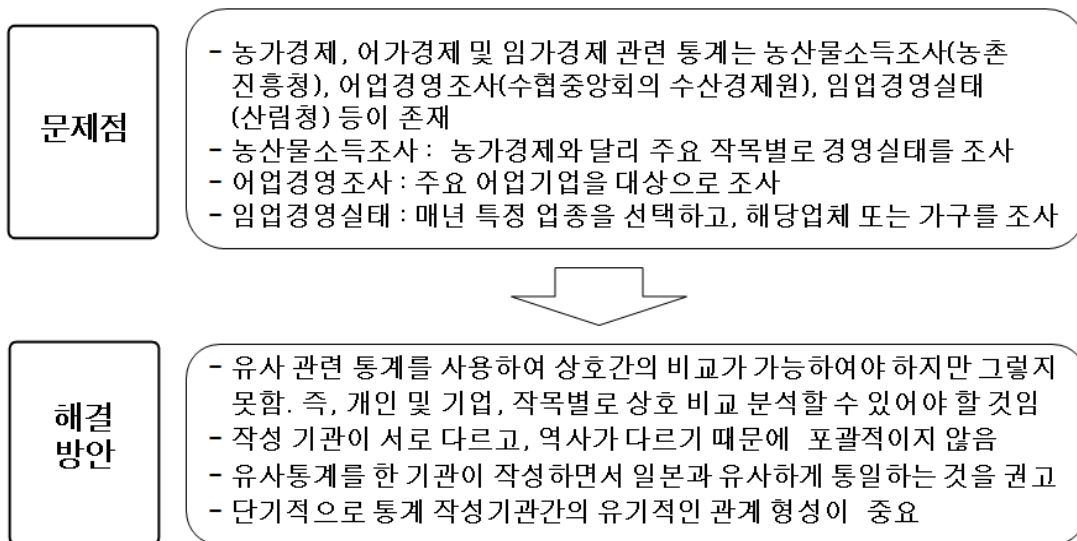
이들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결과와 농산물소득조사, 임업경영 및 어업경영조사와 결합 및 종합하면 매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 및 기업체간의 소득이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고, 특정 작목을 재배하는 개인 및 기업을 비교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종합 비교 분석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이들 통계의 높은 상호연관성에 비하여 조사 기획이나 조사과정에서 그 연관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가경제를 통하여 어가를 분석하고, 어업경영통계를 통하여 기업을 통한 어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상호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매우 미비하다. 즉 현재 어가경제는 통계청이 조사하고, 어업경영조사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원이 조사하고 있으며, 농가경제는 통계청이 조사하고, 농산물소득조사는 농촌진흥청이 각각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통계간의 유기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 통계들이 상호 많은 유사성 및 차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통계는 조사 기획에서부터 실제 조사 및 결과 작성에 이르기까지 상호간의 유사성이나 특성 등이 잘 반영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상호 정의에서 차이점을 가질 수도 있고 조사방법에도 차이를 가질 수 있다.

## 나. 해결방안

유사한 주제 분야의 여러 통계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마도 한 기관이 집중하여 이를 작성하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일 것이다.



**<그림 13> 유사 관련 통계와의 관계 강화**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들이 상당부분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각 기관의 상호 이해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이 어렵다고 한다면, 실제로 개별 통계 작성에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농가경제 및 농산물소득 통계 기획 및 작성, 개선작업 착수시 이 통계를 작성하는 양 기관의 담당자들이 상호간에 협력을 통하여 통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통계청은 통계조사 및 작성에 관한 노하우나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농업진흥청은 농업이나 농가에 대한 특징을 제공할 경우, 관련 통계는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해당 관련 통계를 조사하고, 이를 작성기관들간의 회의를 개최하며, 이를 정례화하는 것일 것이다. 이때 각 기관은 자신이 작성하는 통계를 설명하고, 상호간에 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개별 통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계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계청은 국가통계를 전문화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의 이득보다는 국가통계의 개선에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갖고 기관간의 이익 조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한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작성기관들간의 상호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들 통계들의 이점을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정책활용 및 외국사례를 통한 신규통계 개발 방향

### 1. 지역별 통계의 작성 발표

#### 가. 지역별 통계발표의 필요성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는 모두 우리나라 가계에 대한 경제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하는 통계들이다. 이때 이들 통계의 역할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가구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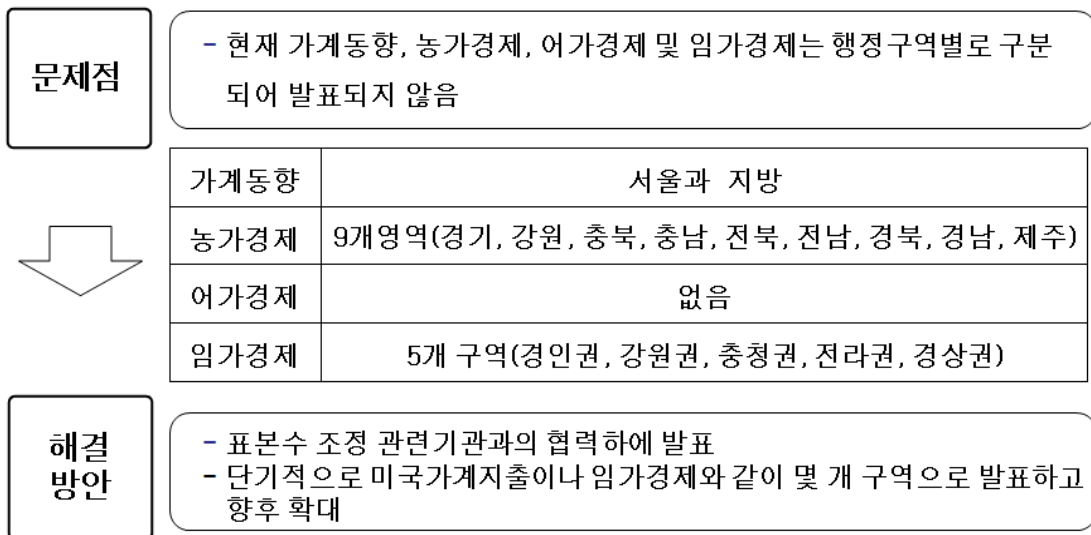
첫째, 우리나라는 행정구역별로 볼 때,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강원도 및 경상북도는 산림이 많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대체로 평야가 많은 지역을 지닌다. 또한 남해는 다도해이기 때문에 많은 양식이 가능하지만 동해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또한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임업, 어업 등 이들 산업에 미치는 지리적인 영향이 지역별로 매우 커다란 차이점을 가진다.

둘째, 정책적인 의미에서 지역별 통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 발전을 위하

여 정책을 수립 할 때 주민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통계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을 때 보다 정확한 정책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가계소비 지출의 비교성의 중요성은 우리의 가계동향과 유사한 통계를 작성하는 일본의 가계조사와 미국의 Consumer Expenditure and Income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9,000개의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는데 연간자료로 63개 지역(10개 지방, 4개 대도시 및 49개 도도부현청 소재지)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도도부현 청소재지(96 표본가구) 등의 경우 표본규모가 작아서 표본오차에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공표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정확도제고를 위하여 수년간 평균치, 인근지역과 통합 추정치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14> 지역별 통계의 작성

한편 미국은 Consumer Expenditure and Income 조사에서 7,500 가구의 표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50개의 주별로 각종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이 경우, 통계의 유의성이 매우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전역을 Northeast, Midwest, South, West 등 4구역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 나. 해결방안

지역통계에 대한 다양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관련 통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가계동향은 소득 계층별 가구원수별, 가구주교육정도별, 가구주의 산업 및 직업별 등으로 여러 부문에서 자세하게 발표되지만, 지역별로는 단지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 대한 분석이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표본수 부족, 오차 확대 등의 원인으로 시군구 별 통계는 제시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특별시나 광역시 및 도 별로 조사되고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가경제는 각종 통계가 도별로 조사되어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으나, 어가경제와 임가경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통계의 표본수가 모두 1,100개 내외이기 때문에 이를 도별로 구별할 경우 통계의 유의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어가와 같이 지역구분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임가경제와 같이 경인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어가경제는 적어도 남해, 동해, 서해 등과 같이 지리적 특성을 통하여 구분하던가, 이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2. 가계동향과 어가경제 및 농가경제의 소비지출 부문 통합

### 가. 소비지출 통합의 필요성

가계동향,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는 모두 우리나라 가계에 대한 경제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하는 통계로 가구주의 소득원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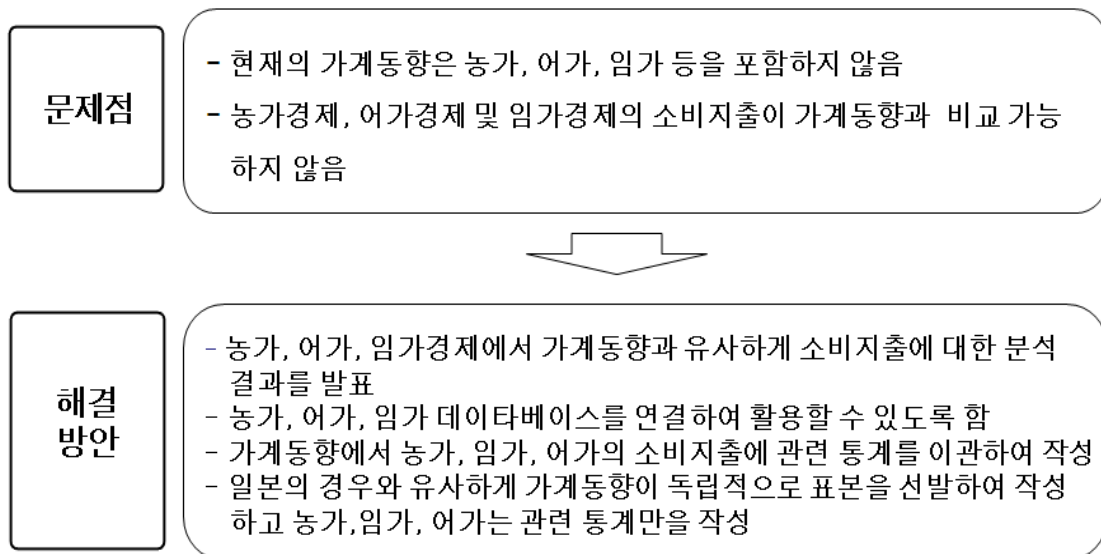
이때 가계동향은 가계의 소비 지출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통계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반 가계의 소비 지출을 조사하고 있는 반면, 어가 및 농가를 표본에 포함하지 않다. 때문에 이들 일반 가계와 어가, 농가 및 임가의 소비지출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가계동향은 과거 조사대상 연혁을 볼 때 1963년 30개 도시, 1,700가구를 대상으로 즉 도시지역의 비농가만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로 실시되다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읍면지역의 2인 이상 비농가까지 확대하여 전국가계조사로 실시되었다. 이는 일반 도시지역에서 비농가가계는 소득과 소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농가 및 어가는 가구원이 개별적인 생산주체이기 때문에 소비지출과 생산 비용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가계의 특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반면 농가, 어가 및 임가는 경영과 가계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경영단위인 동시에 가계단위로서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즉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통계는 모두 경영부문과 지출부문을 동시에 반영하여야 적절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 때문에 경영부문이나 지출부문이나 모두 이들 각각을 특화한 조사에 비하여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농가경제의 조사 지출항목은 가계동향에 비하여 세세항목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이를 비교하기 어렵다. 한편 소득측면에서도 제조업의

기업경영 관련 자료와 상호비교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가계동향에서 일반 가계와 농가, 어가, 임가의 소비를 통합하여 추정할 경우, 일반 가계와 농가, 어가 임가의 정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농가나 어부, 임가로 구분되는 가계가 실제로 농업, 어업, 임업 등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비율이 모두 30%대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각각 따로 조사할 경우, 특정 가계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농가나 어가, 임가 등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를 통합하여 조사할 경우 이에 대한 기준 설정문제가 보다 크게 대두되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그림 15> 가계동향과 농가경제, 어가경제,임가경제의 소비지출 조정



## 나. 해결방안

이론적으로 볼 때 농가, 어가 및 임가도 결국 소비지출 단위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소득을 취득하는 산업에서 차이를 가질 뿐이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비지출통계는 일반 가계의 소비를 나타내는 가계동향과 비교 가능하여야 하며, 이들 통계는 가계동향 통계에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계동향은 명실 공히 우리나라 모든 가계의 소비지출을 조사하는 통계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농가경제 및 어가경제 조사는 생산자 입장에서의 소득과 비용측면을 보다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통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계동향을 통하여 모든 가계의 소비지출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가계동향이나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 모두 일계부에 기초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의 지출관련항목을 가계동향 DB에 접근하여 작성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득이나 경영 관련 수지를 작성하기 위한 농가 및 어가경제 조사표는 다시 이 일계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가계동향은 월간으로 작성되고, 어가 및 농가, 임가경제는 연간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어가, 농가 및 임가는 계절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특정 기간에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을 사용하여 월간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은 매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계부를 사용하면 가계동향과 유사한 형태로 작성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농가, 어가 및 임가 자료는 소비지출항목 상에서 중분류 자료로 제공되었으나 가계동향에서는 세분류로 제공되었다. 때문에 농가, 어가

및 임가경제의 원자료 수집이 보다 정확하지 않다면 가계동향과 비교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조사원들에 대한 추가 교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또한 해당 기관간에 통계 이관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넷째, 조사에 사용된 표본 수에서 볼 때, 현재 어가경제 및 농가경제, 임가경제의 표본수가 각각 2,800 농가, 1,144 어가, 1,100 임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가계동향이 약 9,000가구를 조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동향의 전체 표본수가 늘어나고,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농가와 어가 및 임가의 지출항목을 가계동향에 포함하고, 경영수지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농가경제는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여 지역별 농가가 세분화되어 작성되나, 어가 및 임가는 표본수 부족으로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표본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농가와 어가 및 임가경제는 앞의 정확성 점검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어촌에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조사방법을 개선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현재 농가경제와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와 가계동향은 최초 조사단계에서 조사원의 역할이 상호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통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도시인의 조사와 노령화가 진행된 농어촌에서의 통계조사에는 조사여건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들 통계의 소비지출 부문을 모두 가계동향에 포함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소비지출 부문을 모두 가계동향에서 추정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이들 통계의 상호 비

교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방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먼저, 농가, 어가 및 임가들이 과연 농업, 어업 및 임업으로 소득을 얻는 집단인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여 비교성을 개선하고,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에서 제시하는 통계가 가계동향 통계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후에 가계동향에 농가경제, 어가경제 및 임가경제의 소비지출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과 일본의 소비지출관련 가계동향 조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과거 우리와 유사하게 「가계조사」에서 농가, 어가 및 임가의 소비부문을 포함하지 않고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나 1999년부터 농가, 어가, 임가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2000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가, 어가 및 임가에 대한 소비지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항목별로 발표하고 있다. 한편 농가, 어가, 임가 통계의 계절성 때문에 특성 소비부문은 월간 자료로 가계조사에 포함하고, 소득부문은 연간자료로 가계조사에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

미국 역시 Consumer Expenditure and Income에 농가나 어가 및 임가를 모두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미국은 세분하여 직업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다만 총 8개 직업을 구분하여 소비지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sup>36)</sup>

---

36) 미국 소비지출에서 직업구분을 자가, 임금근로자, 연금생활자, 기타 등 4개 부문으로 대분류로 구분하고, 다시 임금근로자에서는 Managers and professionals, Technical, Sales and clerical workers, Service workers, Construction workers and mechanics, Operators, Fabricators and laborers 등 5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어가와 농가, 임가는 자가영업에 해당된다.

## <참고문헌>

- 산림청, 『2007 임가경제통계』, 2008
- 산림청, 『2006 임가경제통계』, 2007
- 산림청, 「2008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09년 5월 11일
- 산림청, 『임업경영』, 2008
- 최성애, 장학봉, 『어가경제통계 개선에 관한 연구』, 20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통계청, 「2008 농가경제통계」, 2009
- 통계청, 「2008 어가경제통계」, 2009
- 통계청, 「200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09. 4.14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침서』, 2009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농산물) 지침서』, 2009
- 통계청, 『농수산 표본관리 지침서 지침서』, 2007. 12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지침서』, 2009
- 통계청 메타자료 홈페이지, <http://meta.kosis.kr/bzmt/>
-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http://www.nso.go.kr)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9
- 통계청, 『임가경제조사』 2008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8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9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9
- 통계청, 『임업경영실태조사』 2007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

서, 2007

통계청, 『어업경영조사』 2006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6

<해외>

일본 총무성, 家計調査の概要, 2009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 각호, <http://www.stat.go.jp/data/kakei/index.htm>

일본 농림수산성, 農業經營統計調査, 각호

일본 농림수산성, 営農類型別經營統計 (個別經營) の概要, 2009

일본 농림수산성, 営農類型別經營統計 (組織經營) の概要, 2009

일본 농림수산성, 漁業經營統計調査, 각호

일본 농림수산성, 林業經營統計調査, 각호

일본 농림수산성, 林業經營統計調査 利用者のために, 2009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Guide to Official Statistics in Japan*, 2007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006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nsumer Expenditures and Income*, 2007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nsumer Expenditures and Income," in *BLS Handbook of Methods*, 2009, [http://www.bls.gov/opub/hom/homch16\\_a.htm](http://www.bls.gov/opub/hom/homch16_a.htm)

Statistics Canada, *Household Income, Facilities and Equipment Survey*, 2008

<http://www.statcan.gc.ca/pub/75f0010x/4060197-eng.htm>

Statistics Canada, *Survey of Household Spending*, 2008,

<http://www.statcan.gc.ca/pub/75f0010x/4060194-eng.htm>

Statistics Canada, *Family Expenditure Survey*, 2008

<http://www.statcan.gc.ca/pub/75f0010x/4060196-eng.htm>

Statistics Canada, *Note to Former Users of Data from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200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arm Production Expenditures 2007 Summary*, August 200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arm Business and Household Survey Data: Customized Data*, Summaries from ARMS <http://transcoder.usablenet.com/tt/www.ers.usda.gov/Data/ARMS/StatesOverview.htm>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8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 Phase III –Cost and Returns Report Interviewer's Manual*, 2008

United Nations, *Rural Households' Livelihood and Well-Being: Statistics on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e Household Income*, 2007